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안양시안양로15길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3
SUMMER
VOL.47

08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선교, 더 깊은 연결

14 잠비아 이현수 집사
독수리 5형제 & 원더우먼의 9박 10일 잠비아 선교

16 베트남 김정숙 권사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알의 씨앗을 심는다



휴식 같은 사랑

| 이정하



· 시인
· 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산문집 『우리 사는 동안에』 등 외 다수 출간
· 경남신문, 대전일보 신춘문에 당선
· 現 마음사회 대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그늘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무성한 줄기와 잎을 드리운 나무
그 아래 잠시 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의자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삶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쉬었다 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겼기 때문이다
자신은 물러앉더라도 그를 위해
자리 하나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랑
작은 불빛 같은 사랑

팍팍한 삶의 길
따스한 위안이 되어주는
모든 그런 사랑이 되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휴식 같은 사랑



겨자씨.

C.O.N.T.E.N.T.S

02 PROLOGUE 휴식 같은 사랑	30 형제교회를 찾아서 I 열린광성교회 김광배 목사 예배와 가족, 선교의 공동체를 꿈꾸는 열린광성교회	56 청년, 100도 I 김호수 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04 VISION 23 곽승현 위임목사 2023 7대 목회중점사항	32 조금 특별한 예배를 찾아갑니다 부산 세계로병원	57 청년, 100도 I 신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십니다
05 믿음·소망·사랑 맥추절	34 3040 섬김을 향한 남다른 열정	58 함께 읽고 싶은 글 1 주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I 손해일 스프링고우드와 황제팽귤	36 크리스천 코칭 I 한종진 장로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2)	60 함께 읽고 싶은 글 2 내가 만난 거룩한빛광성교회
07 2023 SUMMER Special Theme 항상 힘쓰라	38 성경 속 인물 초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Priscilla and Aquila)	61 문화산책
08 테마 인터뷰 I 곽승현 위임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39 2023 특별기획 I 리더에게 길을 묻다㉠ 리더에게 길을 묻다 - 평신도 제자훈련	62 COVER STORY 파라다이스 4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44 학생 기자 수첩 I 최아인 교회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기록부	63 캘리그라피 I 이현미
14 선교 더 깊은 연결-잠비아 I 이현수 집사 독수리 5형제 & 원더우먼의 9박 10일 잠비아 선교	46 학생 기자 수첩 I 이하음 행복을 전해주는 상담사, 이소영 목사	64 명작 Review 오래된 미래
16 선교 더 깊은 연결-베트남 I 김정숙 권사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48 꿈담 I 초등2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배움의 뿌리를 깊게	66 여행, 스토리를 담다 하이커 그라운드
18 THE 희망나눔 I 전도팀 이정선 집사 "하나님 크신 사랑에 보답할 길은 전도뿐"	49 꿈담 I 초등5부 직접 예배를 섬기며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68 특별한 전시회 어르신 그림일기 전시회
20 포커스 I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50 꿈담 I 중등부 교복데이 & 더 웨프	69 독자마당 I 서보연 사랑
21 포커스 I 우문식 자기 조절력 키우기	51 꿈담 I 고등부 부활절 & 제자훈련	70 주님을 노래하다 I 오성한 목사 고백
23 포커스II I 김숙영 완벽주의의 허상(虛像)	52 청년광장	72 KS 단신 I 짝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26 크로스로드 I 크로스로드 비빌언덕팀 비빌 언덕이 되어 줄게	54 HOT ISSUE I 조희성 초파케어 - 하임이를 응원해요!	74 크로스로드
28 7월의 향기 I 나형빈 목사 나의 길 갈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76 세계선교위원회를 소개합니다
		78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79 윤정역 창고 스튜디오



곽승현 위임목사 2023 7대 목회중점사항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2

선교

더 깊은 연결

2023년 교구별
선교지 방문의 해



1

다음세대

더 깊은 교육

작은교회
선교사 파송



3

이웃

더 깊은 사랑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지속



4

신앙생활

더 깊은 경건

2023 전 성도
성경 1독 운동



5

장년

더 깊은 영성

시니어 사역 강화



6

공간

더 깊은 소통

교회 공간 증축
및 물품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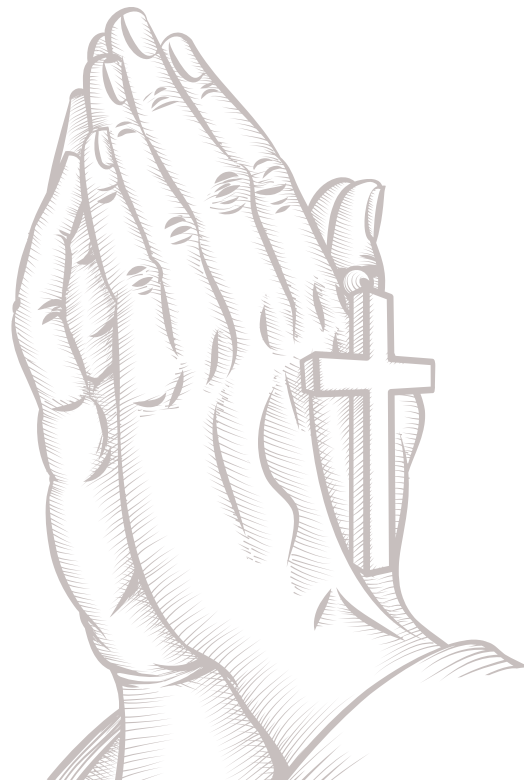


7

교회

더 깊은 나눔

분립개척위원회
활동 시작



맥추절

Feast of Harvest



7월 2일은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다. '첫 열매의 날'로도 표현된다. 유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무교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제 50일째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다.

[출처: 교회용어사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수많은 절기가 등장한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초실절, 니팔절 등.

맥추감사주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켰던 절기에 대해 알아보자.

큰 틀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다.

유월절 (3~4월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

맥추절 (5~6월경)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 감사 절기

초막절 (9~10월경)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절기

1. 무교절
유월절

2.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3.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스프링고우트와 황제펭귄

글 손해일(시인, 국제PEN한국본부 명예이사장)



아프리카 고원지대에 ‘스프링고우트(spring goat)’라는 염소 떼가 있다.

해마다 봄이면 광란의 질주 끝에 절벽에 집단 투신하는 누떼들이다. 광란의 질주로 비관 자살할 만큼 염소들도 센치하게 봄을 타거나 무슨 절박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생태전문가들의 분석은 의외였다. 건기 내내 굶주리다가 봄이 되면 연한 새 풀을 먼저 먹기 위해 다투어 질주하다 벌어지는 해프닝이란다. 맨 앞쪽의 염소들이 앞서 달리니 중간과 뒤쪽 무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따라 광란의 질주를 한다. 새 풀의 향연을 즐기기는커녕 막상 절벽에 이르러서도 관성으로 멈추질 못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비록 동물이지만 우매함의 극치다. 무리 중에 현명한 리더가 있었더라면? 질주 중에 한 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고 상황 파악을 했더라면? 반복되는 참극을 중단시킬 역사적 반면교사가 있었더라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스프링고우트는 아닐까?

이와 대조적인 것이 ‘황제펭귄(emperor penguin)’이다. 황제펭귄은 남극의 겨울 혹한에 번식하는 유일한 바닷새이다. 3월이면 수컷은 100여km나 떨어진 내륙 깊숙이 걸어 들어가 암컷이 올 때까지 약 40일 이상 기다렸다가 짝짓기를 한다. 암컷이 낳은 한두 개의 알을 약 55일간 교대로 품는다. 수컷은 발등에 알을 얹은 채 서서 털복숭이 피부로 감싸며 2개월 이상 먹지도 않고 정성껏 돌본다. 바다로 간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이 교대로 한 달쯤 바다로 나가 축난 몸을 추스른다. 새끼들은 어미가 반쯤 씹어 소화 시킨 물고기나 오징어를 받아먹고 자라며

숨털이 깃털로 바뀔 때까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강강술래처럼 겹겹이 원을 짓는 허들링으로 영하 50-60도의 혹한과 폭설을 견딘다. 바다표범과 큰도둑갈매기 등 천적에도 슬기롭게 대처한다.

스프링고우트와 황제펭귄은 둘 다 먹이사슬의 최약체이지만 너무도 대조적이다. 황제펭귄의 지극한 순애보, 헌신적인 새끼 사랑, 천적 대처능력, 영하 60도 혹한 속에서의 생존력, 퍼스트 펭귄의 용감성, 현명한 집단생활 등은 한 편의 감동 드라마이다.

엄혹한 적자생존의 국제정세 속에서 ‘빨리빨리 병’에 중독된 우리에게도 두 동물이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2023 SUMMER Special Theme

항상 힘쓰라

²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³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⁴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⁵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2-5]





당신은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남자와, 딸이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가족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교회, 신학교, 기독교 단체 등에서 종교적 신념이
다른 동성애자나 무슬림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된다?

이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에서 맞닥뜨릴 현실이다.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지금까지 수차례 입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자.

« 거룩한빛광성교회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주최한
‘학부모를 위한 성경적 성 가치와 교육’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광승현 위임목사

광승현 위임목사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글 전영의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승현 위임목사 또한 지난 4월 그 자리를 비장하게 지켰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차별금지법에 기독교가 이토록 거센 저항의 깃발을 내건 이유는 무엇일까? 광승현 위임목사에게 들어본다.

일명 ‘평등법’이라고도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발의될 때마다 차별금지법에 담긴 예시 조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골자는 ‘누구나 성적 지향, 성별, 장애,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이다.

“‘차별 금지’는 성경의 기본정신이고 바탕을 이루고 있

습니다. 바리새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 또 창기와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차별을 친히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일까?

‘성적 지향’, ‘성별’, ‘종교’ 등의 항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 정서적, 감정적, 성적으로 끌리는 사회적인 성적 기호’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성적 기호’를 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회자 또는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을 때 듣는 누군가가 그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고발하면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조차 ‘성적 지향 차별금지’ 개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에 자리하게 되고 교

회는 결국 진리를 전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라고 광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현재 세계 195개국 중 35개여 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국가마다 영역, 사유, 개념 등이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해외의 입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급진적인데다 우리 국민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아 더 많은 사회적 피해를 예고한다.

설교, 전도의 자유 억압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설교와 전도다.

“목회자가 성경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설교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강단, 언론, 방송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다 고발당하면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

» 매주 목요일 8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 리더들. 왼쪽부터 서울차반연 상임총무 안석문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승현 위임목사, 진평연 집행위원장 김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가 뒤따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시정명령의 부과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설교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 그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 모욕감, 차별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 또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종교적 색채를 띤 어떤 콘텐츠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법적 제재는 횡수 제한이 없다. 위반 시마다 받게 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2~5배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이는 교회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뿐더러 교회의 존립을 위협한다.

단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직장, 군대, 각종 모임 등에서 동성애 비판 발언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것 역시 처벌 행위다. ‘전도’ 또한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길거리, 병원,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가 타인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노방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 이단의 유입

교회, 신학교, 기독교 방송국 등에서도 동성애자, 무슬림, 또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간주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그들을 채용에서 배제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의 한 교회는

동성애자에게 우리 돈 8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365일 이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교회로선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동성애와 이단 세력의 유입을 제어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로 침투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교구 목사, 무슬림 영상 간사, 신천지를 믿는 회계 간사 등등 기독교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구성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목회자의 설교 및 교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 기록하고, 이를 외부로 송출하는 일을 맡은 영상 간사가 무슬림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볼 보듯 뻔하다.

무슬림과 한국 기독교인의 결혼도 증가 추세다. 기독교인 아내를 따라 교회로 들어온 무슬림 남편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감쪽같이 이슬람 교리를 전파해도 교인들이 이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아동 청소년 인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인권에 있어서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에이즈,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어린 자녀의 인권이 위협당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자녀가 성전환이나 동성애 의사를 내비쳤을 때 부모라 할지라도 이를 저지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전환을 부추기고, 동성애자 양성을 조장하게 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차별 금지’고 ‘인권 존중’ 인지는 사회가 함께 고민할 일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터주는 길이 된다.

“동성애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있으니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부부로 구성된 가정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성애자가 내 자녀의 짝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산책하는 공원에서 동성 부부를 만날 수 있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내 딸과 같은 화장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 중립 화장실’, 차별금지법 신호탄인가

우리나라도 ‘화장실’ 사용에 변화가 일고 있다. 보통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런 기존의 화장실 유형을 깨고 2022년 성공회대와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모두의 화장실은 여성,

남성, 장애인, 트랜스젠더 등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이다. 서울대 또한 2026년 준공 예정인 문화관 건물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고, 화장실은 하나의 ‘문화 시설’이기 에 성별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도입 배경을 밝힌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모시는 딸’, ‘어린 딸과 함께 외출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두의 화장실이 긴급하게 쓰인다. 하지만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 촬영,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성 중립 화장실을 실시한 나라들에서조차 이를 금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성 중립 화장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학에 성 중립 화장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반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학생 딸에게 성 중립 화장실 이용을 권하는 부모가 있을까?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는 동성애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광승현 위임목사는 그렇지 않다며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님께서서는 동성애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기독교인과 똑같이 사랑하고 공존히 여기시며, 그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동성애자는 사랑하



«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기도 모습. 왼쪽부터 광승현 위임목사, 김원평 교수, 안석문 목사

“하지만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성경의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 기독교가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조차 예수님께서서는 용서하셨는데 기독교가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또한 동성애자를 대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동성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몇 차례 반복되었지만 최근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적 지향은 여러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박승현 위임목사는 ‘사랑의 결핍’으로 꼽았다.
“인간은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 난 사랑의 양동이를 제3의 것으로 채우고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성 간의 애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며 박승현 위임목사는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동성애자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

뜻하게 품어줘야 함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다음 3가지를 당부한다.
“지금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탈진리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외쳐야 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내 동성애자가 기댈 수 있는 공동체와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 그들이 와서 쉬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열에 선로가 휘어져 열차가 탈선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레일은 강철재로 만들어졌지만 열을 받으면 솟아나거나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철도공단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일을 받치는 침목 공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튀어 나가려는 힘보다 이를 잡아주는 힘을 더 크게 해 선로의 변형을 막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종종 어디론가 튜다. 때론 궤도를 이탈시킨 원인조차 모르고 허공에서 휘어지고 꺾이며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공중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레일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침목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허공을 맴돌지 않는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평생 미션일 것이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장로회 노방전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방전도는 불가능해진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3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부활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 범위 지정

- 1. 교인 헌금 받을 교인 지정
- 2. ①~⑩번 중 하나 선택 ①한부모 가정 ②장애인 ③다문화 ④노인 ⑤노숙인 ⑥청년 ⑦선교지 ⑧튀르키예/시리아
- 3. 미지정 교회에서 선별한 환우 및 어려운 가정에 전달

•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1.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장애인성경퀴즈대회 기금 지원	15,405,100원
	2. 장애인		
	3. 다문화		
	4. 노인		
	5. 노숙인		
	6. 청년	청년창업 재정	2,260,000원
	7. 선교	선교지 지원금	11,877,600원
	8. 튀르키예/시리아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기관 지원	27,213,160원
크로스로드 : 비빌언덕 사역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사역	9,600,000원
교인 지정 대상자			16,649,350원
작은교회 / 선교사 / 외부 지정 대상자			26,271,000원
교구/부서 추천 교인 가정			43,000,000원
합계			152,276,210원



4교구 잠비아 선교

5월 25일~6월 3일

독수리 5형제 & 원더우먼의 9박 10일

글 이현수 집사

잠비아로 출발

9박 10일의 긴 일정, 부담스러운 경비, 비행시간만 왕복 3일. 잠비아로 가는 선교 여정에는 여러 악조건이 따랐다. 내가 속한 4교구의 선교지는 이병은·노영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대륙의 잠비아였다. 희망자가 있을까? 교구장인 최중운 목사님은 우려하시면서 4교구에 선교 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다. 기적이 일어났다.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최 목사님의 상기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집사님, 잠비아 인원 찾습니다. 남자만 5명, ‘독수리 5형제’입니다.” 최 목사님을 필두로 김광석, 박형식, 송화섭, 이현수 집사로 구성된 독수리 5형제. 며칠 지나지 않아 최창애 권사님이 합류해 ‘독수리 5형제 & 원더우먼’ 잠비아 선교단이 꾸려졌다. 5월 24일 저녁 8시 교회에서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공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잠비아

200kg이 넘는 큰 트럭 12개가 우리와 동행했다. 가방 안에는 선교사님과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옷, 식료품, 약품, 복음 팔찌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잠비아 공항에서 뵈 이병은, 노영순 선교사의 반갑고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먼저 선교사님이 준비한 승용차 2대, 트럭 1대에 나누어 타고 드림·찰롬학교로 가서 12개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숙소로

와서 짐을 풀니 현지 시각 오후 3시 30분(한국, 밤 10시 30분). 꼬박 하루가 걸렸다. 역시 아프리카는 멀구나!

5월 25일 첫 사역

5월 25일 첫 사역지는 선교사님 부부가 2015년에 세운 아머(Ar-mor)교회와 학교였다. 현재 이곳은 선교사님 부부가 키운 현지인 제랄드 목사님이 선생님 6명과 함께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120여 명이다. 우리가 간다는 소식에 이웃 어린이까지 250여 명이 모여 환영을 해주었다. 최중운 목사님은 ‘세상의 빛(Light in the world)’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준비해 간 옷, 양말, 물통과 4교구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과자, 생수, 사과 등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한 명씩 안아주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축복의 말도 함께 전했다.

그리스도부활교회 & 학교

5월 27일 현지인 기프트 목사님과 3명의 교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부활교회(Christ Elevation Church)와 학교를 방문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임에도 150여 명의 학생들과 10여 명의 교사들이 나

✧ 잠비아 선교단 '독수리 5형제 & 원더우먼'



✧ 현지 성도들과 함께 차보타교회와 에드가 목사님을 위해 합심 기도



와 우리를 뜨겁게 맞이했다. 예배 전, 아이들이 10명씩 나와 자신의 신앙고백 또는 성구를 암송하고,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대단히 열기가 뜨거웠다. 예배 후 준비해 간 옷, 양말, 과자, 사과, 바나나, 생수 등을 나누어 주고 교사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전달했다.

마케니모닝스타신학교

마케니모닝스타(Makeni Morning Star)신학교를 세운 박상순 선교사님은 노영순 선교사님의 학교 선배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잠비아에 오셔서 세우신 학교로 정년인 70세에 은퇴하시고도 10년을 더 섬기시다가 몸이 약해져서 신학교 관련 모든 것을 노영순 선교사님께 위임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단다.

박상순 선교사님이 귀국하신 뒤 노영순 선교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신학교는 운영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는 토요일 한글학교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님 부부는 땅값만 해도 몇 억이 될 수 있는 이곳을 현지인 교육(신학교 또는 일반 학교)을 목적으로 운영할 교회만 나타나면 무상으로 넘기고 싶다고 한다. 선교사님 부부는 그 사명을 거룩한빛광성교회가 감당하길 간절히 원하셨다.

차보타교회 & 오찬 초대

5월 28일, 숙소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차보타(Chobota)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에드가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손길이 자주 닿을 수 없는 차보타교회의 5번째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 1년째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신다. 이날 예배는 어른과 아이들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아이들의 특송에 이어 우리 팀에서 ‘Amazing Grace’를 현지어인 난자어로 불렀다. 예배 후 어느 때 보다 풍성하게 준비해 간 옷, 양말, 과자, 사과, 생수, 설탕을 나누어 주면서 선교사님 부부의 차보타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에드가 목사님은 선교사님과 우리 팀 모두를 오찬에 초대했다. 토종 닭을 잡고 현지인 주식인 옥수수밥, 중국 채소로 만든 반찬 등으로



1. 마케니모닝스타신학교. 20에이커(약 6만 평)의 대지 위에 신학교가 사용하는 면적은 11에이커. 강의실, 남녀 기숙사, 식당, 선교사 사택, 현지 채용인 사택 등을 갖추고 있다
2. 노영순 선교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
3. 그레이스홀고아원에서 학생들에게 물총을 선물해 주고 함께 노는 사진
4. 아이들에게 옷, 양말, 사과, 과자, 생수 등을 나누어주는 모습
5. 최중운 목사님의 설교를 에드가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다

정성껏 대접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잠비아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받아 보는 식사 섬김이라고 하셨다.

잠비아 선교를 마치며

이번 잠비아 선교지 탐방을 통해 우리 팀이 가장 잘한 것은 아침을 제외한 모든 식사를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한 것이었다. 식사와 티타임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방문객 없이 외롭게 사역하신 것을 위로해 드리고, 지난 20년간 선교사님 부부가 잠비아에서 겪은 수많은 고비와 그때마다 여호와이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다. 5월 10일 수요일예배 때 최재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밥 차려 주시는 하나님’이 가슴 깊이 와닿는 9박 10일이었다.

5교구 10명 베트남 선교

5월 25일~5월 29일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글 김정숙 권사



여는 말

‘선교’는 설레면서도 부담스러운 단어이다.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기에 설레고, 힘들고 어렵기에 부담스럽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시간을 조정해 가며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5교구는 나형빈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두 분, 지구장님 세 분, 권사님 네 분, 총 10명이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문병수, 강영미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게 되었다. 새벽 3시, 교회에서 모여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받은 후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심장병 어린이 ‘보자 홍’ 가정심방

우리의 주된 사역 중 하나인 가정심방 사역은,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호치민에서 외곽으로 3시간 거리인 벤째 지역에서 만난 첫 번째 아이는 ‘보자 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살짜리 남자아이였다. 형도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 두 형제 모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아도 완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과의사 이규준 선교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대부분이 고작 20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소망을 갖고 기도하자고 다짐하며 준비한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축복에 감격한 홍이 엄마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며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청년부 후원으로 수술한 ‘도안 민 당’

정글 길을 걸어 만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도안 민 당’이라는 14세의 제법 큰 아이였다. ‘도안 민 당’은 우리 교회 청년부 후원으로 수술한 아이였다. 우리 청년부 파이팅!^^ 준비한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태희 권사님의 기도와 팀원 모두의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로 준비한 나이키 가방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또한 우리의 방문이 고마워서 한사코 만류해도 일일이 오토바이로 한 명씩 태워 나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때 묻지 않은 순박함이 느껴졌다. 이 멀고 깊은 정글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두 살 ‘응으옌 홍 안’

세 번째 도착한 ‘응으옌 홍 안’이라는 아이의 집은 스콜 현상으로 내린 소낙비로 통로가 빗물로 가득 차서 신발을 벗고 진입을 해야만 했다. ‘응으옌 홍 안’은 두 살 된, 너무나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준비한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나형빈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슨 열매인지 잘 알지 못하는 과일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히 먹고 돌아오는데, 아이의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리안을 직접 따왔는데 우리가 떠났던 것이다. 아쉽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특송,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을 급히 연습해서 찬양을 올려 드렸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역시 실전에 강한 우리 선교팀이다.^^

사실 선교사님께서 다음 날 있을 금요집회 때 특송과 나형빈 목사님의 말씀, 한송희 장로님의 전도특강을 갑자기 부탁하셨다.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나형빈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렁차고 은혜롭다니~ 다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다. 이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 부으심을 느낀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다음날 성령을 받았다는 성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심장병 수술비 555만 원 전달

주일예배 시간에 5교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555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작은 섬김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3명이 치료받고 소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맺음말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선교하기 힘든 나라다. 한인교회를 세우고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모델 삼아 내적으로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외적으로는 심장병 수술, 고아원 사역, 밥퍼 사역 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 자연스럽게 선교하고 계시는 문병수, 강영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자랑스럽다. 또한 함께 동역자로, 심장병 수술 환자를 전담하여 선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외과의사 이규준, 서영미 선교사님 부부(우리 교회 협력선교사) 역시 틈틈이 병원 문을 닫고 선교지로 향하시는 모습이 감동이다.

우리는 잠시 머물고 왔지만, 지금도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머지않아 베트남 현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보답할 길은 전도뿐” 전도팀 이정선 집사

글 전영숙 기자

« 캄보디아 예배팀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이정선 집사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도 아직까지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전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임에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런데 전도가 삶의 전부가 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곁에 있다. 전도팀을 섬기고 있는 이정선 집사. 재미있는 건, 그녀 자신이 거리 전도에 나선 전도팀에 의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오늘도 거리에서, 병원에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17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코로나로 남편은 중국에 묶이고 저는 한국에 주저앉은 신세가 됐어요. 중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기에 한국에서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지를 나눠 주던 전도팀을 만났지 뭐예요. 전도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은 죽음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뭐든 해야 하지 않나 싶었지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60여전도회 회원들과 자신보다 나

이는 어리지만 엄마처럼 건강은 물론 생필품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김용남 전도사 덕분에 이 집사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 드려도 아까울 게 없단다. 교회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이 집사의 일과는 ‘기승전전도’다. 중보기도를 마치고 거리 전도, 사명자집회를 마치고 거리 전도, 수요예배 드리고 작은교회 전도, 병원 발마사지 봉사하며 전도, 전도동역훈련 때 헬퍼로 봉사하고 디모데팀 전도, 새벽기도회 참석은 기본이고 주일엔 1부 중보기도팀과 캄보디아 예배까지 섬기고 있다.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예수 십자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기분 좋고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내가 뭐길래 날 그토록 사랑하시나 싶어서 뭐든지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못 해도 시켜주세요.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치게 돼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이정선 집사지만 마음 한구석엔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딸한테 화가 나서 상처 되는 말도 하고, 함께 살던 아들과는 크게 싸우고 분가까지 해



«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 발마사지 봉사와 전도를 기쁨으로 행하는 팀원들과



« 적은 인원이지만 캄보디아 청년들의 순수함에 기쁨이 넘친단다

서 남남처럼 살고 있다.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기는 하지만 싸움의 원인이 아들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기도도 많이 했다. 얼마 전 손주가 보고파서 찾아갔더니 그동안 말 한마디 않던 며느리가 먼저 잘 지내시냐고 말을 걸어와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겼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녀들이기에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으면서 함께 즐겁게 믿음 생활할 날을 고대해 본다. 시동생의 죽음으로 생후 1개월 만에 이 집사의 가족이 된 가슴으로 낳은 막내아들 역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바랄 뿐이다.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친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내색 않고 잘 자라준 기특한 아들이기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자녀들 때문에 그녀가 더 전도에 매진하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담담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끄러움 같은 건 없어요.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게 되던데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난감하기보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데 왜 싫다고 하지, 구원받으면 당신이 좋은 거지 내가 좋나.’라는 생각에 알미운 마음마저 들었죠. 근데 지금은 불쌍한 마음이 더 크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마음이 오게 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시니, 그저 자신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라고 말하는 이 집사는 아직도 부족함이 더 많은 일들을 섬기고 싶단다. ‘오병이어’도 함께 하고픈 마음인데 고관절염증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설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

다. 오랜 기면증 증세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들 정도지만 그녀는 “전도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전도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못을 박는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 양, 내 일이 아닌 양 미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믿음의 세월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잡게 된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인터뷰할 게 뭐 있냐고 못내 부끄러워했던 그녀였지만 ‘전도’라는 단어 앞에 당당한 모습에 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즐거움 그 자체가 된다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 ‘마음’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3

자기 조절력 키우기

자기 조절력이 잘 발휘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문식

완벽주의의 허상(虛像)

인생이 힘들다면
혹시 나도 완벽주의자?

김숙영



자기 조절력 키우기

자기 조절력이 잘 발휘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글 우문식(한국공정심리연구소, 『마음 근육 키우기』 저자)

자기 조절력(self-regulation)이란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능력인 감정조절과 충동 통제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IT 회사 직원인 유진 씨는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일단 불안감에 휩싸이면 그것을 떨쳐낼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 불안은 커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유진 씨의 표현대로 이 같은 정서적 롤러코스터는 엄마로서, 팀장으로서 능력을 훼손하곤 했다.

“10대인 딸이 두 명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 문제에 관해 저와 대화하지 않으려 해요. 제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까 봐 그러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아이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회사에서도 팀원들 말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듣지를 못해요. 정서 불안 때문에 저는 좋은 엄마, 좋은 팀장이 되기 어려워요.”

대학교 교수인 현우 씨는 충동 통제력 부족으로 자주 곤경에 빠지곤 한다. 동료들은 재미있고 활달한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는 신랄한 농담으로 동료들 입술에 자주 오르내리는 편이다. 현우 씨는 교수 회의 도중 느닷없이 엉뚱한 말을 내뱉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대로 표출한다. 곧바로 사과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금세 또 반복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안주도 많이 먹는다.

“제가 꼭 열두 살짜리 사내아이 같아요. 집에서도 충동적이고 직장에서도 충동적이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고 저 자신에게 ‘안 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일에서 신이 나서 밤낮없이 그 일만 하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고 말아요.”

위와 같은 감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싶다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을 키워야 한다. 대니얼 골먼은 ‘자기 조절력’을 리더의 성공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기도 했다. 자기 조절력은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적인 욕구에 소신 있는 자기 응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조절력은 감정이나 충동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조절력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행동이나 게으른 습관과 탐닉 행동,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유발적인 행동 또는 습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 조절력이 잘 발휘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자기 조절력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날마다 사용량에 따라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근육과 똑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정한 양의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일과를 시작하지만 의도적으로 본인 행동을 통제해야 할 때마다 자기 조절력이 조금씩 소모된다. 자기 조절력이 모두 고갈되면 운동, 적당한 음주, 게임, 성적 유혹 물리치기, 효율적인 금전 관리처럼 자기 통제가 필요한 다른 일을 할 기력이 별로 남지 않는다. 낮 시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멋지게 자기 조절력을 발휘했어도 ‘마음 근육’이 고갈된 저녁 시간에는 결국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제임스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예쁜 여자에게 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부사장으로 승진하려면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특히 주의해야 했다. 본격적인 승진 경쟁에 뛰어들 그는 몇 주 동안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 채 동료와 직속 부하 몇 명을 해고해야 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늘 하던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늦은 밤에 퇴근할 때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몇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업무에 시달리던 그는 감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아름다운 비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어느 날 밤 회사 근처 호텔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했다. 이 사실은 곧 직장에서 공론거리가 됐고, 제임스는 사생활에서 자기 조절력을 잃는 바람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승진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동료와 가족 사이에서 신뢰와 존중도 잃었다.

자신을 잘 통제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조절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닥나곤 한다.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혹에 잘 빠지며, 대인관계가 나쁘고 주위 평판이 안 좋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곤 한다. 또한 불안장애나 우울증, 공포증, 강박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 장애가 나타난다.



기쁨, 감사, 만족 등의 긍정정서를 키우면 자기 조절력이 향상된다

그렇다면 나의 자기 조절력 점수는 어떻게 될까? 다음 검사는 나의 자기 조절력이 어느 정도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력을 고갈시키는 4가지 요소인 생각과 감정, 충동, 성과를 조절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아래 항목에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긴다.

1. 나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__.
2.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 폭 빠져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__.
3.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__.
4. 항상 시간을 잘 지킨다__.
5.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__.

자신의 자기 조절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든 간에 다음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아홉가지 방법 중 3~5개 정도 선택해서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조절력이 향상될 것이다. 첫째, 기쁨, 감사, 만족 등의 긍정정서를 키운다. 둘째, 소량의 설탕을 섭취한다. 셋째, 유혹의 대상을 치운다. 넷째,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섯째, 금전 관리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여섯째, 음주를 자제한다. 일곱째, 명상을 한다. 여덟째, 자신에게 정직하자. 아홉째, 나의 성격강점을 찾아서 발휘한다. 필자는 2006년 일 년 동안 첫 번째 긍정정서를 키우고, 마지막 성격강점을 찾고 발휘해서 당시 89kg이던 체중을 75kg으로 조절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완벽주의의 허상(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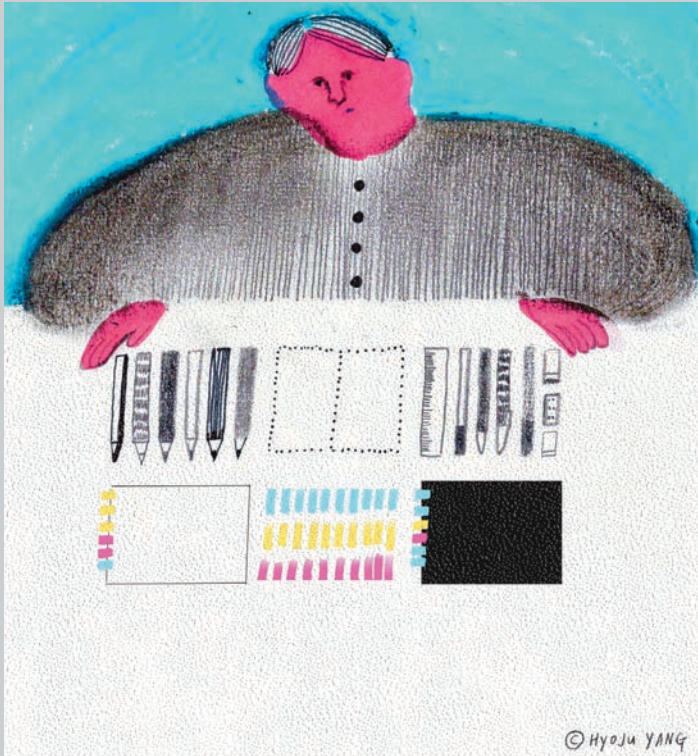
인생이 힘들다면 혹시 나도 완벽주의자?

글 김숙영(이화가족상담센터 독서치료전문가)

성적표를 받거나 업무를 마쳤을 때 ‘이만하면 좋다.’고 나를 다독거리지 못하고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 더 잘해야 해.’ 하면서 만족의 기쁨을 억누르거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편이라면 강박적인 완벽주의 성격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끈질기게 노력하고도 만족하지 않는 쪽이라면 진정한 완벽주의자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불행을 부추기는 중은 아닌지 살펴보며 멈출 필요가 있다.



자신의 단점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효영
(그림, 양효주 作-그림책학교 재학중, 프리랜서)



정리벽에 가로막힌 창영 (그림, 양효주 작-그림책학교 재학중, 프리랜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태도

지금의 나보다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목표에 매진해서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이 느끼는 성취감 및 만족감은 행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일 원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다음에 닥칠 뭔가를 위해 대비해야 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과하고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는 심리적 고통상태에 놓여 있다면 완벽주의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태도, 완벽주의는 성과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높은 성취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고 추월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성공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일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심리적 소진에 이르러 우울감, 좌절감, 패배감 등 부정적 정서에 빠져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한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나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게 하고,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대나 기준을 세우게 하며 그것에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가족

중년의 남자 창영 씨는 책상 위의 필기구가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욕실의 수건이 각 잡혀 반듯하게 걸려 있는지, 창문의 블라인드가 옆의 것과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느라 소파에서 편히 쉴 수가 없다. 아내에게 수건을 거는 법과 블라인드를 다루는 법에 대한 조언을 하다 보면 말다툼으로 번져 기분을 잡치기 일쑤이다. 아내 미영 씨는 일상적인 청소와 정리정돈에 매달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의 큰딸 효영은 대학원 과제물의 제출기한이 임박해지면서 신경질적이 되고 초조한 티를 많이 낸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마감일 전에 보고서 작성을 마쳤어야 했고, 교수가 자신의 보고서를 받고 감탄해야 한다.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완벽한 과제물을 탄생시켰다고 버려던 것과는 달리, 걱정해 휩싸인 채 과제물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런 자신을 향해 비난과 조롱 섞인 말을 하며 스스로의 기분을 망친다.

세 사람의 모습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창영 씨는 정리정돈 습관, 정리벽이라는 강박 성격으로 깔끔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미영 씨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면서 흡족해 한다. 그녀에게 청소는 자신의 공간이나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세세한 데까지 신경 쓰면서 질서가 잡히고 청결이 유지된다는 것에 은근히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효영이 완벽한 보고서를 꿈꾸고 평판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결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중요한 보고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한이 임박해서야 일을 시작하는 꾸물거림 때문에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압박감이 커져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린다. 효영이 완벽한 보고서를 꿈꾸는 모습 뒤에는 ‘절대 단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숨어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때에 자신이 인정받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완벽주의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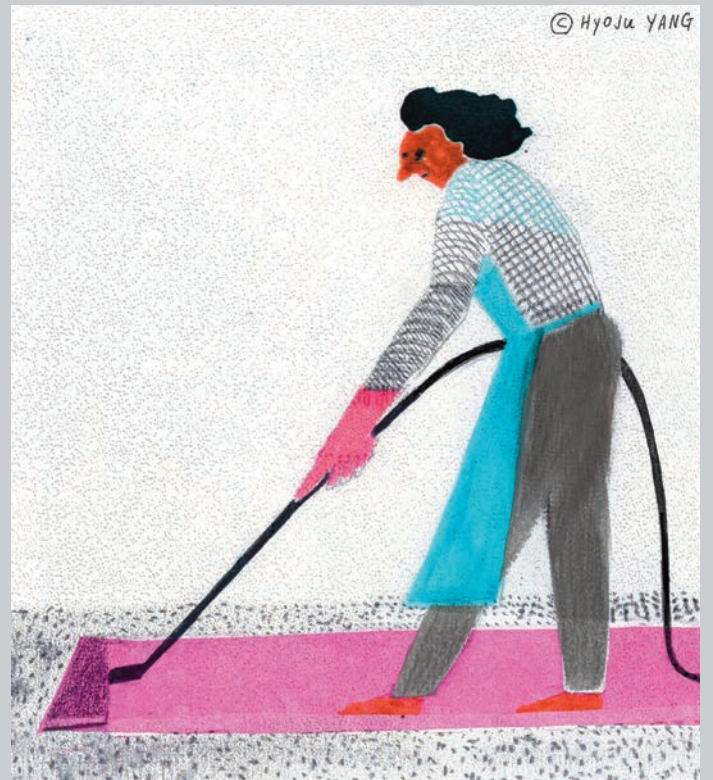
완벽주의는 성취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있다. 일과 관련한 특정 분야나 활동에서 나타나며,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굳어진 것들이 많은데 특히 어린 자녀들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부모의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미영 씨의 부모님은 공들여서 청소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면서 청결 면에서 완벽할 것을 강조했고, 창영 씨의 부모님은 사회 예절이나 몸가짐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는 효영이가 학업에서 뛰어나길 바라며 일일이 관여했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했다. 어린 효영이는 부모가 제시한 높고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했다. 효영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생각, 태도, 행동을 부모의 뜻이나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부모의 높은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동설정하고 스스로를 성취압력에 몰아붙이게 된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의지를 굳세게 하여 마음먹은 일이나 성과에서 탁월한 결과를 내게 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선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시하지 않으면 삶의 만족감을 좀먹어 들어갈 수 있다. 창영 씨는 정리벽에 갇혀 흐트러진 수건이나 블라인드에

마음을 빼앗겨 집에 있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없고, 미영 씨는 집안 곳곳의 먼지를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청소와 걸레질이 떠나지 않아 쉴 수가 없다. 그뿐인가. 효영이는 실패한 보고서를 만회하기 위해 계획 짜기 바빠 친구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강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가득 담긴 완벽을 위한 지시어와 규칙을 찾아내서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고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엄격하고 냉정한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너무 힘이 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배어 있는 부모의 태도를 지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애썼어, 열심히 한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조금 더 명랑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면 점차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태도를 바꾸는 데는 평생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야 시작되는 법이다.



청소에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미영 (그림, 양효주 작-그림책학교 재학중, 프리랜서)

비밀 언덕이 되어줄게

글 크로스로드 비밀언덕팀



3. 제주도 여행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박종현 비밀언덕 부팀장

1.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단법인크로스로드 정성진 목사님, 사회선교위원장 한주현 집사, 문화선교위원장 구성록 집사의 후원으로 저녁 식사
2. 해마다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도서비를 후원해주시는 박승현 위임목사님. 뒷줄 비밀언덕 봉사자 백은혜 권사, 박미순 권사, 파주보육원 자립전담 이현주 사회복지사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21-23]

비밀언덕 프로젝트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을 다니면서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정 목사님께서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이 힘들게 혼자서 자립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고, 보호자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일중학교 자원봉사팀과 함께 파주보육원 청년들을 만났고, 지금은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운정교회, 그리고 풀향기교회를 비롯한 많은 협력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낯은 정만큼 키운 정도 크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보육원 청년들이 모두 친자식처럼 느껴집니다. 파주보육원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보니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기에



☞ 사단법인크로스로드와 거룩한빛광성교회 지원으로 다녀온 제주도 여행

어렵게 접촉을 시도하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같이 혼자 밥을 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각자 좋아하는 반찬에 밥을 먹이자는 취지로 비밀언덕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크로스로드 비밀언덕팀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퇴소할 때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전부터 침대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빛광성교회 금홍봉사팀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용품과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다주고 있고, 박승현 목사님께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선한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립생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상담 전문 요원을 연결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며, 교인들의 사업장과 연결해 자격증을 따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은 혼자서 생활하기에 종종 사기를 당해 목돈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비밀언덕팀을 통해 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은 전문 상담과 교육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반복된 피해를 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청년이 출소한 후에는 고시원에 임시숙소를 마련해 주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청년, 각종 자격증을 따며 열심히 생활하는 청년, 물리치료학과 및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취업한 친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밀언덕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 청년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비밀언덕 후원금 전용계좌
우리은행 1005-103-893935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사무실 031-901-0316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글 나형빈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어린 시절 친구들과 사이에서 제 별명은 이름의 성 ‘나’ 씨를 이용한 ‘나 재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여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명절 연휴이면 대문을 며칠 동안 열어 두었고 아버지게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과 제 손을 잡고 여러 선물을 주어주시는 고마운 어른신들로 집안이 북적이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 알만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나 재벌’에서, 압류딱지 앞에 무릎을 꿇는 청소년으로

갑작스런 IMF를 겪으면서 아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2년 사이에 작은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더 더 작은 집으로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압류딱지를 붙이러 집에 쳐들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신 무릎을 꿇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용서를 빌었던 일이 한창 사춘기였던 저의 청소년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방황하고 뻘뻘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

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이었습니다.

부르심과 확신

일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하셨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할 때 주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당장 가정의 경제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눈앞에 계산되는 학비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내가 책임진단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나의 사랑만 전하면 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려운 가정형편을 뒤로 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확신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대학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소천하시게 된 모교회 장로님의 장학재단이 세워지면서 ‘비전 인재양성’ 장학생으로 뽑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부 4학년을 마친 후에도 때마다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내려주시



1. 2023년부터 섬기고 있는 5교구 목장연합예배
2. 2023 제자훈련반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 심방
4. 작년까지 3년간 섬겼던 10교구 목자 아우회

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학대학원 3년, 대학원 2년, 주님의 종으로 훈련 받는 9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학비보다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확신은, 단순한 물질의 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목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저의 목회와 신앙에 가장 큰 밑거름이자 달란트가 되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전에 5년을 사역했던 교회를 섬기는 중에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로 청빙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임목사님의 “나 목사, 교회를 위해 1년만 더 있어 줘.”라는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진로를 위해서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불편함 속에는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이후의 사역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의 제 아내인 사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마음속 한 켠에 소망해 왔던 거룩한빛광성교회로, 그것도 코로나 직전에 청빙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빛광성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구심방과 여러 사역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보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찬송가 384장의 첫 가사이자, 제 딸 예인이의 이름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을 사랑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열린광성교회 김광배 목사

예배와 가족, 선교의 공동체를 꿈꾸는 열린광성교회

글 김용기 기자

하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열린광성교회’ 김광배 담임목사를 만났다. 다가오는 주일 사용할 주보를 만드느라 바쁜 손길을 잠시 내려놓고 그간의 개척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열린광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선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이다. 세상의 다양한 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 기도하며 회복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등이 되어 주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현대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개척 과정에 ‘코로나 19’를 만났는데.

2019년 9월 29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3달 만에 코로나로 대면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그 후로 3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하지만, 예배를 중단한 일은 없었다.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렸다. 대면 예배는 아니었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부터 개척에 참여해 준 집사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긴 터널을 지나오는 힘이 되었다.



1. 김광배 열린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어버이날 바자회 수익금을 운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받은 기념증서를 들고 있다
2. 9명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파송한 교육전도사와 선교사의 인도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3. 열린광성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성인, 유초등부, 중등부 예배를 각자의 예배당에서 드린다. 분당 외에 2개의 예배처를 더 확보하고 있다



» 열린광성교회는 부활절에 개척 이후 처음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제1회 수련회를 가졌다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주일이면 교회 공간이 활기차게 돌아간다. 유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성인예배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드린다. 서울 서북노회에 속한 229개 교회 가운데 유초등부를 둔 교회가 절반이 안 된다는 통계를 봤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전문사역자가 참여하며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다. 유초등부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파송한 교육전도사님과 교육선교사님들이 참여해 재미있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중등부는 조이선교회 안세환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육전도사와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준 거룩한빛광성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가족공동체를 꿈꾼다.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뭉친 교회를 이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가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한 달 동안에도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많은 지역이지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터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역 상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버이날 바자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 참여로 행사가 커지며 수익금도 발생해 운정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개인적 소명이 있다면.

우리 시대에는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개척 4년 차가 되면서 그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묵상하는 중에 교회 개척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섬기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특권이라는 말씀을 보며 교회 개척이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상가에 있는 교회는 들고 나는 사람이 많다. 정 붙이면 떠나가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는 유모라는 심정으로 맡겨진 시간 동안이라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 올해 환갑을 넘은 장년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해 식사를 나누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부산 세계로병원

글 김형수 기자

다른 특별한 예배 기사를 준비하다가 한 독자분의 소중한 제안에 따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주님 사랑을 전하는 뜨거운 의료 선교 현장을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세계로병원 원목이시며 피에타스 선교지원연구소장이신 권을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 세계로병원 예배 현장
 ✎ 환우를 위한 기도



병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19년, 저희 병원의 부흥사경회 강사로 초청되었을 때 막연하게 병원 선교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를 강사로 섬기며 직원들과 교제하면서 병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2020년부터 협동목사로 섬기다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원목의 직함을 가지고 병원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 예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희 병원은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8층 예배실에 모여 아침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배실이 넓지 않아 전 직원(140명)이 동시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명 이상이 매번 참석하여 예배실과 복도를 꽉 채웁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합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은 선교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직원이 되면 아침예배 설교를 돌아가면서 맡아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배공동체를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차원입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나 사연이 있다면?

최근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완고한 성격으로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신 70대 여성입니다. 따님 말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가끔 용기를 내어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반응하셨습니다. 병실 심방을 갈 때마다 따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따님이 옆에서 모친을 간호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평생 불자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십니다.

병원 선교의 현실은 어떤지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은 선교하는 병원입니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신앙을 가지고 선교적 마인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선교를 하는 데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굳이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병실 심방과 전도를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틈틈이 만들어 환자들을 심방하고 복음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원목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병원 선교의 비전은 저희 세계로병원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비전입니다. 특별히 저는 원목으로서 의료인들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영적인 ‘케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병원에서의 병원 선교는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저희 병원의 사명선언문에 보면, “세계로병원은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전인치유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는 ‘전인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병원 선교의 목적이자 비전입니다.

섬김을 향한 남다른 열정

넘치는 에너지의 비결은 섬김 속에 있었다

글 우주희 기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이진선 집사

작년 12월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진행한 3040 세대의 신앙의식 조사 결과, 49.7%가 10년 후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회의 연약한 허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하지만 여기 불철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다.

공동체에서 시작된 훈련

5학년 딸을 둔 80년생 워킹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진선 집사님. 대부분의 훈련을 청년부에서 받았고 특히 가족치유 및 마음치유의 약자인 ‘가치마치’ 과정에서 상처와 묶임의 뿌리까지 내려다보며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다. 현재의 남편 집사님까지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니 공동체의 소중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집사님은 청년부가 부흥하던 시절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자체가 복이라며 공동체로 공을 돌린다.

공동체의 은혜

그런 집사님 또한 아이를 낳고 삼 년 정도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아이를 쫓아 계단만 오르내리던 중 넘어져 피까지 흘리는 자녀를 보며 괜히 예배에 왔다고 후회하며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다. 이런 순간에도 집사님께 힘을 준 것은 바로 공동체였다. “그 시절이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신혼부부팀이 있었어요. 공통의 관

심사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지요. 그런 소속감이 있었기에 힘든 시절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섬김을 향한 남다른 열정

본인 성격이 대문자 E(MBTI 검사의 E성향은 외향성을 의미)라 활발히 활동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지만 섬김을 향한 집사님의 열정은 남다르다. 조이폴 공동체에서 부부가 부장단으로 섬기고 있고, 건가세팀(건강한 가정 세우기)에서는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에이랩(ALAF) 아카데미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초등2부 교사, 브니엘 찬양단, 예마중(예수마음 중보기도학교)의 스텝으로도 섬기는 중이다. 요즘 집사님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활동이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아요. 광순헌 목사님의 1인 시위에 동행한 것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와 건강가정 기본법까지 이 세 가지 악법을 막기 위해서 거의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들은 세이프 섹스 교육 즉, 안전한 피임법을 가르친다. 이에 반해 선교단체인 에이랩 아카데미에서 양성한 강사들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친다.

“우리는 성 지식에 앞서 성 가치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되었는지, 본인이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한지 알려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적 베이스에서 절제를 교육합니다.”

넘치는 에너지의 비결도 사역

말은 일이 많은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놀랍게도 섬김 속에 있었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이폴과 건가세팀이다. 건가세를 하면서 성교육 강의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 하지만 이 활동을 하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곳 역시 사역의 자리들이다.

“아웃풋만 내려면 제가 지치잖아요. 그런데 예마중을 하면 정말 그 속에 공급이 있어요. 또 브니엘에서 뜨겁게 찬양하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보니 또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또 나가서 열심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자 남편

너무 바쁘다 보니 남편과 자녀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남편 집사님은 그저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부부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궂대가 다르면 이 사역 못 할 거예요. 솔직히 저는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성교육 강의하러 다니면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강의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바로 남편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강의할 때 쓰도록 보내줘요. 남편이 저와 함께 하는 동역자라는 점이 감사해요.”

3040 세대를 향한 응원

“예배당에서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는

아닐 거예요. 아이 돌보느라 엉망인 삶일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조이폴에도 애들 쫓아다니느라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나눔도 편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바라보면 너무 귀해요.”

험난한 육아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현재 고생하는 후배 가정을 섬기는 일에도 진심이 가득하다. 교회 내 3040 세대를 향한 우려가 깊다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이런 분들로 인해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 간다.



1. 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 특강
2. 브니엘찬양단 활동
3. 조이폴 수련회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 ②

글 한종진 장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다. 세대는 빠르게 교체된다. 세대를 움직이는 주축은 조속히 바뀐다는 의미다. 더구나 지금의 다음세대는 성인세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의 다음세대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며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성인세대가 이끌어가려 한다. 그런데 다음세대는 자신들의 시대는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넘겨받지 못한 채로!

다음세대는 그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 수준에서 그들이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인데, 성인들은 ‘그들은 아직 부족하니 성인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해.’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성인들은 ‘사랑’이라 칭하고, 다음세대들은 ‘간섭’이라 칭한다. 진정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다만, ‘내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라.’ 하셨다.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배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 코칭 철학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인이든 다음세대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성인들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려 하는지 경청하고, 스스로 도전하며 이루어 나갈 것과 도움을 요청할 것을 구분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와주되 스스로 도전하며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며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낸 다음세대가 건강한 성인세대로 성장할 것이다. 나의 경험상으로도 이에 대한 신뢰가 있다. 카이스트(KAIST), 동국대, 한동대 학생들을 수년 동안 코칭하며 변화와 성장을 보았고, 우리 교회 청년 코칭으로 그의 변화와 성장을 보았다. 아직 초등생인 우리 손주들을 코칭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코칭은 문제 해결이 주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도록 도와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코칭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도와서, 결국 스스로 그곳에 도달하도록 함께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도 바로 이런 방법을 원하는 것 아닐까?

우리 교회 크리스천코칭사역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그 역할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코치가 되도록 교육(CCL: Christian Coaching Leadership)과 코칭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3월에 시작한 기본과정(CCL 9기)은 4월까지 8주 과정을 마치고 바로 실습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표현한 배운 것과 느낀 것, 실생활에 적용할 것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운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

느낀 것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나는 내가 알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 다른 이를 보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는 나를 느꼈다.

실생활에 적용할 것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자 애쓰는 한 주가 되자.

배운 것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경청을 통하여 집중해서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다.

느낀 것

잘 들어주다 보면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스스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생활에 적용할 것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존재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경청을 해야겠다. 그러면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 영성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 CCL 9기 수료자들과 함께 찰칵!



☞ 9기 강의 마지막날에 코칭 종합실습을 위해 선배배가 함께 수강 중



☞ 선배와 후배의 코칭 실습 장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Priscilla and Aquila

글 김은숙 기자

« 성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머무는 사도 바울' »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은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 다닌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주님을 전한 아름다운 부부로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이다.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고향은 소아시아 본도이며 그는 노예 가문이었다. 반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A.D41-54)가 유대인을 추방할 때(나사렛 칙령) 고린도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의 에게해를 낀 항구도시로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들 부부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 거처를 제공하였으며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1-3]

그들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로 건너갈 때도 함께 따라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적극 도왔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유대인 학자요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가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상세

히 가르쳤고 예수 부활의 의미와 성령 세례를 강조함으로 이론에만 강한 그를 성령으로 변화시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성도가 배울 점은 성숙한 신앙과 진정한 사랑이다. 이 정신이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고 아볼로를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교회를 연합하고 화합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바울이 소중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였음을 로마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쁜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3-4]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은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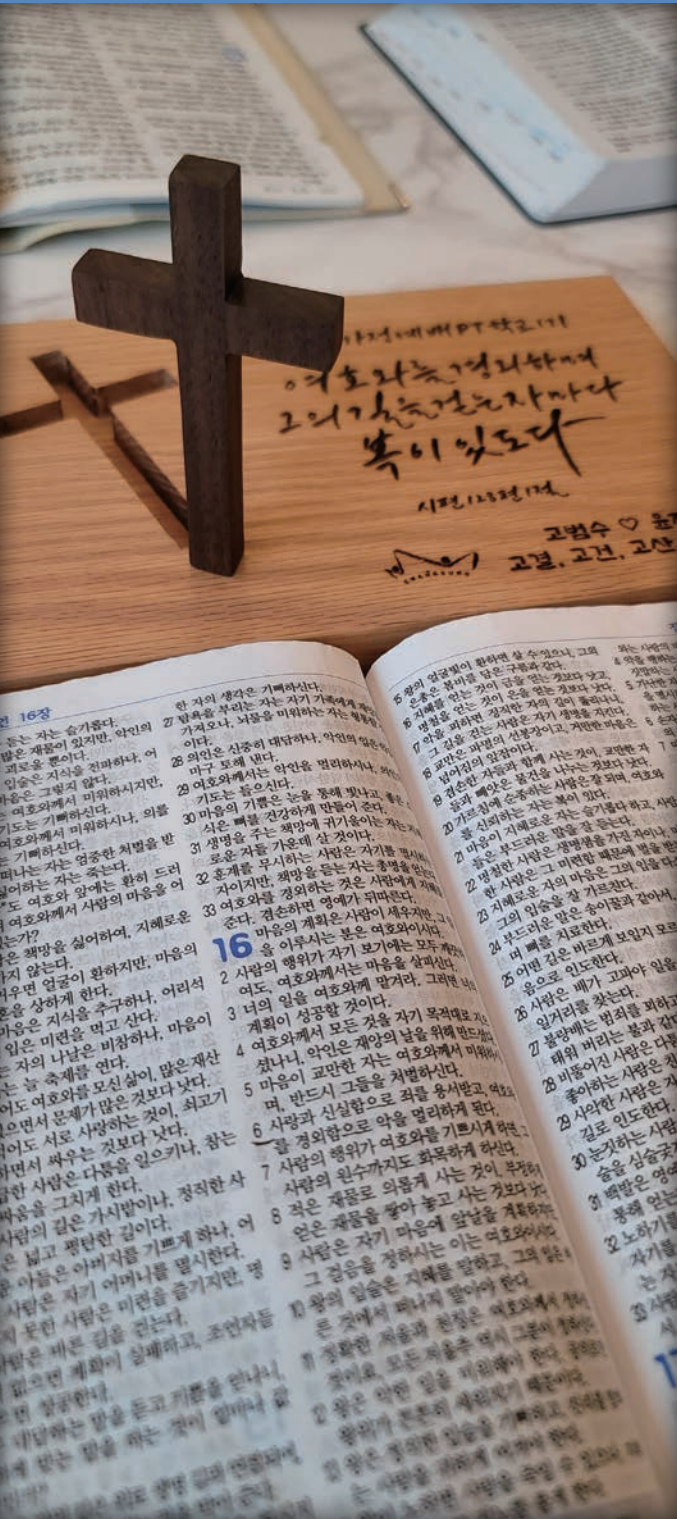
길을 묻다

평신도 제자훈련

기획 김형수 기자, 조희성 기자

그동안 포스트코로나와 다음세대에 대해 교계의 ‘리더’분들께 길을 물었습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교회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이 교회를 떠나가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평신도 제자훈련의 뿌리를 내린, 약 40년 전인 1984년의 사랑의 교회 고(故) 옥한흠 목사님께 그 길을 묻고 한국교회 초창기, 그 부흥의 정신에 대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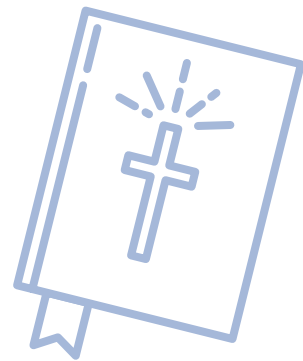


길을 묻다 평신도 제자훈련

옥한흠 저(著) 『평신도를 깨운다』,
28장 ‘한국교회의 뿌리, 그 초창기의 정신’ 발췌문

『한국교회가 이 땅에 처음 정착하면서 네비우스 방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890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존 네비우스 목사 부처를 초빙하여 두 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향후 한국 선교의 지침이 될 선교 방법의 원칙을 배웠다. 네비우스 방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지침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原理)’다. 그것은 신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 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평신도에게 철저히 가르칠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전 교인을 총동원하기 위한 ‘평신도 제자화’를 가능하게 해준 정신이 되었기에, 원리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교육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다. 네비우스 방법이 가르쳐준 기본 원리는 평신도를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교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었다. 평신도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평신도가 상호 사역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했다. 그리고 평신도 개개인이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전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전제했다. 당시의 교회가 설교보다 가르치는 사역에 우선성을 두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설교 못지않게 말씀 훈련을 강조하는 목회였던 것이다.



교육 중심의 목회

(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마더와이즈’ 교육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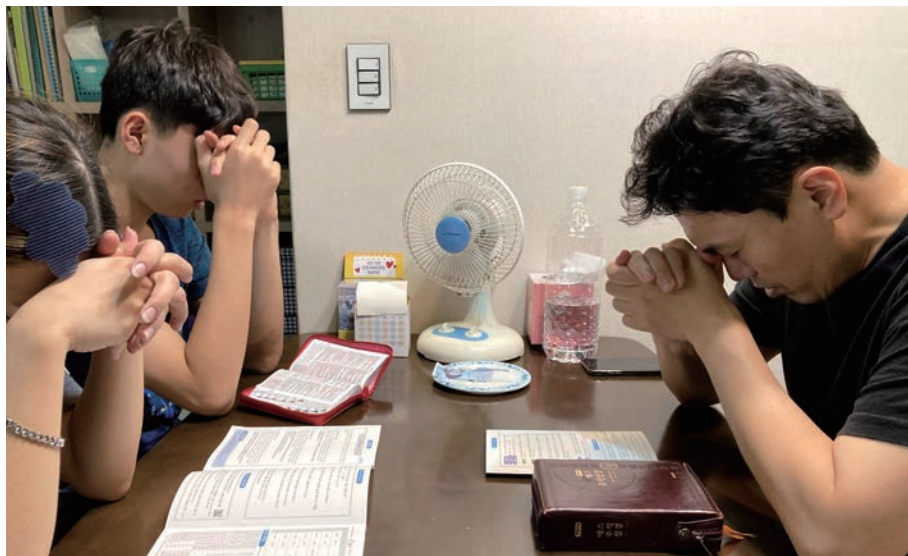
우리는 그때 사경회라고 하는 집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일종의 성경공부반으로 개인의 신앙 성장과 전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종의 제자훈련이었다. 첫 성경공부반은 1890년 서울에서 언더우드 박사가 자기 서재에서 7명의 학생들을 모아 시작하면서 생겼다. 1901년에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성경공부반을 개설해야 한다는 선교 정책이 채택되었고, 4년 후에는 전국 교회 교인의 60%가 한두 개의 성경공부반에 출석하고 있었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 선교 지역 안에서만 약 800개의 성경공부반이 있었고 5만 명 이상이 거기서 배우고 있었다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다.

그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가르친다는 것은 설교보다 그 영역이 넓고 성격은 더 치밀하다. 설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면이 우세한 반면에,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망라해서 말씀으로 그 요구를 채워주는 면이 강하다. 설교는 듣는 자들의 응답을 호소하지만 가르침은 배우는 자들의 지적 동의를 요구하며 생각을 넓혀준다. 인간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가르침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히 5:14].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심지어 아이까지 전부 다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생이었다고 한다. 각자 자기보다 신앙이 앞선 선배로부터 개인 양육을 받았고, 자기보다 신앙이 뒤떨어지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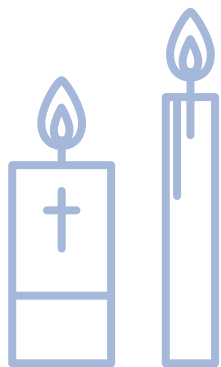
배들을 가르쳤다. 네비우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평신도가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초창기 한국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같이 지식과 힘과 능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가정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다. 초창기에는 교회 형편상 가정을 선교와 목회 사역의 근거지로 이용하는 일이 불가피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대교회가 가정 교회였고 한국의 초대교회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적인 이유만으로 가정 중심의 목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 안 있어 비록 초라하지만 자체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평신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변화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남자들을 위해 사랑방 모임이 활발하게 퍼져 나갔고, 여자들을 위해 안방 모임이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임 때마다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 훈련을 받았고 불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었다.

셋째는, 개인 전도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다. 당시에는 교회의 평신도가 전부 다 전도자였다. 그들이 선교 전략이나 지도자의 강요에 끌려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 훈련 중심의 목회와 가정 중심의 목회에서 축적된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 나간 것이다. 허버트 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895년에 시작하여 그 후 10년간은 선교 지역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1900년 한 해만 해도 교인이 30% 이상 증가했다. 선교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새 신자는 계속 생겨났으며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벽지에까지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일들은 조직화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단순하고 진지하게 나눈 개인 전도의 결과였다.”



가정 중심의 목회
(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242목장 김대승 집사 가정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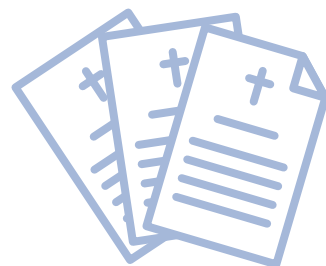


개인 전도 중심의 목회
(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장로회
노방전도 모습)

초창기 교회가 전도를 위해 사용한 수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 접촉을 통한 전도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백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던 1909년-1910년 사이 개인마다 주중에 하루를 개인 전도의 날로 정하고 헌신했고 그렇게 평신도가 개인적으로 전도에 수고한 날들의 총수가 전국적으로 십만 일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목회를 알려면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 선교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의 하나가 된 배후에는 이처럼 평신도 훈련 중심의 목회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은 선교사 중심이나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 평신도를 훈련하여 교회 안에서 상호 사역의 봉사를 담당하고, 세상에서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 할 증인으로 파송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랑방과 안방 같은 소규모 모임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요람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당시와는 전혀 다르다.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그때 교회가 사용하던 것을 지금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그러나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회의 기본으로 삼았던 정신만은 얼마든지 계승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다시 찾아 목회 현장에서 불을 지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역사기록부 양재동 집사님과 인터뷰



◇ 1997년부터의 설교록



교회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기록부

글 최아인 학생 기자(중3)

최아인 기자

안녕하세요. 겨자씨 최아인 기자(이하 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재동 집사님

반갑습니다. 역사기록부에서 일하는 안수집사 양재동(이하 양)입니다.

최 역사기록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양 저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자료를 보여주시며) 이게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주보거든요. 이건 97년도부터 퇴임하실 때까지 정성진 목사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고요. 찬양대, 교육부, 위원회 등 각 부서 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봉사하셨다는 정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최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이런 자료들을 전시할 계획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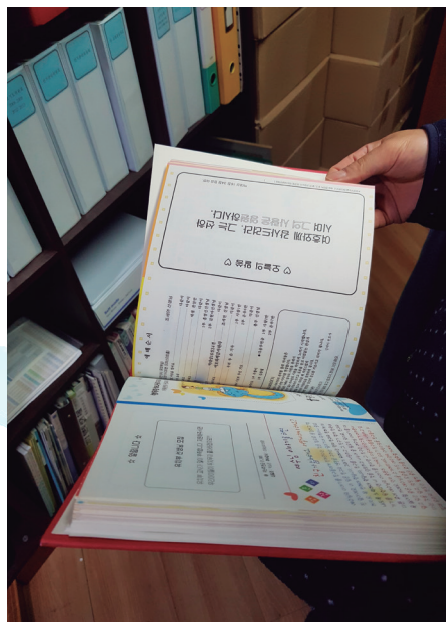
양 전시를 한 번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부서별 자료 제공이 부족한 편이에요. 앞으로 전시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으신다면 특히 연말, 연초에 진짜 바빠시겠어요?

양 연말, 연초뿐 아니라 항상 바빠요(웃음).

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신가요?

양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치부 주보모음집



◇ 역사기록부의 기록물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양재동 집사님



◇ 과거의 『겨자씨』도 책장 한켠에서 볼 수 있었다

최 두 분이요(놀람)?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양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때에 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요. 한 부서에 전화를 서너 번씩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엔 ‘다른 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하고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웃음).

최 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런저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거요.

양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신데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부서별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 특정해서 ‘이런 걸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자료 범위는 각 부서가 판단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보세요. (유치부 주보 모음과 함께 아이들의 재미있는 그림과 선생님들이 받은 편지를 보여주시며)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도 간직하고 싶어서 다 제출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역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최 교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양 한 해 활동한 모든 기록들을 제출해주시면 저희 역사기록부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잘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웃음).

자료실엔 설교집, 주보뿐 아니라 각 부서 사진을 보관하는 CD, 교회 건축 당시의 도면자료, 세례증서 등 정말 다양한 자료가 있었다. 20년사 책을 읽어보며 유아세례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아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지금 내가 흘려보내는 매일매일도 다 기록되어 미래의 누군가가 볼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행복을 전해주는 상담사, 이소영 목사

글 이하음 학생 기자(고1)

오늘의 기분은 어떤가요? 요즘 어떤 표정을 많이 짓나요? 이런 사소하지만 세심한 질문은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연히 마주친 동네친구의 익숙한 안부처럼 편안한 설렘을 가져다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며,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가슴 따뜻한 공감과 사랑으로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힘을 전해주시는 상담목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대면 상담 중인 이소영 목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목사로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광성심리상담센터는 부부, 가족, 청소년, 진로를 고민하는 분, 혹은 우울과 공황장애, ADHD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 주 슈퍼바이저로 상담사와 목사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상담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었나요?

네. 가장 기쁘게 기억나는 사례는 양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청년이 저와 1년 정도 상담을 한 뒤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모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양극성 성격 장애는 조증상태와 우울상태가 지나치게 대비되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삶을 회복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상담의 과정 동안 잘 견디고, 꾸준히 자신과 마주한 결과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내담자들이 잘 회복하여 삶에 적응하면 마치 제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드린 것 같아 기쁩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담센터의 슬로건이 ‘괜찮아요, 당신은 소중하답니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나고 반짝이는 삶입니다.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상담과 병원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상담 오시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약을 통해서 뇌에 신경전달물질을 안정화 시킬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 조절해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 숨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우울증에 빠진 이유를 비춰보며 ‘아, 그래서 이러했구나.’ 이렇게 자기 이해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우울증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숨지 말고, 우울증에 환한 미소를 보내줍시다!

상담사님만의 정신건강 관리비법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먼저 금요기도회가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며, 찬양하며 울고... 어쨌든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저는 내담자들의 무거운 짐과 감정을 다 담아내어 그들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마음껏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기도회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신랑이나 동료, 친구들을 만나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다 보면, 마음이 리프레쉬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성상담심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교회 내에 있는 상담센터라 더더욱 다가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상담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과 같은 영적인 부분도 터치하여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세요.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며, 성장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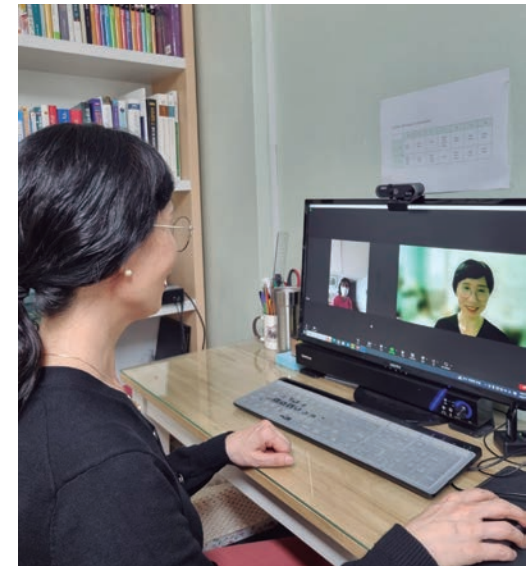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봄처럼 예쁜 꽃들을 피워낼 수도 있고, 겨울이 되어 혹독한 쓰라림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그 속의 꽃내음에 푹 빠져보고, 차가운 계절에는 따뜻한 온도를 전해줄 난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음의 사계절에 집중하여, 자신을 외롭게 두지 말아요!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진행되는 심리 검사



⋈ 여건상 대면 상담이 어렵거나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zoom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한다



⋈ 모래와 작은 도구들을 매개체로 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모래놀이치료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배움의 뿌리를 깊게

글 전영숙 기자

초등학생으로서의 당당함이 커져 가고 있는 초등2부는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선 4월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기 활동을 접목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 40일’ 컬러링 북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월 9일 부활절 예배 때는 초등2부 선생님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해서 성극을 올렸는데 색다른 모습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는데,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 놀랐어요. 어리다고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말씀 전달자로서 깨달음이 컸어요.”라며 윤화평 전도사는 말씀 준비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5월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인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선교 주일, 그리고 성령강림 주일로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집중했다.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활동적인 코너 학습들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버지 주일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선교 주간에는 매달마다 헌금하는 선교특별헌금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연결해서 초등2부에서는 6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신앙의 어른들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 배워나갔다. “말씀을 통해 초등2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신앙의 어른과 교회를 닮은 모습으로 빛어져 가기를 소망한다.”는 윤 전도사의 바람을 들으며 믿음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씩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에 감사했다.

- 1 부활절 예배 때 선생님들이 직접 성극을 준비한 초등2부
- 2 초등2부는 1~4월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다
- 3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초등2부 모두의 사진이 한곳을 향하고 있다

직접 예배를 섬기며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글 전영숙 기자

어느 정도 신학기에 적응되자 초등5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주 예배 때 아이들이 직접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준비하면서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과 열심으로 준비한 기도과 성경 봉독을 할 때 목소리에 보다 깊은 진심이 전달력 있게 다가와 교사들의 미소를 자아낸다.”며 박성훈 전도사는 뿌듯함을 내비쳤다.

4월 부활절에 보다 집중한 초등5부는 2월부터 진행한 ‘사순절 말씀 퀴즈 달력’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사순절 말씀퀴즈 달력을 진행하며 부서에서 제시한 활동 이상으로 모든 퀴즈 말씀을 필사하며 참여한 박지우 학생의 행동은 여러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숙하고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박 전도사는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히 여기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난주년을 보내면서 초등5부는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았다. ‘고난주간 미션 챌린지’를 통해 요일별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에 대한 성경필사와 세족식, 애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삶의 자세를 직접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겸손을 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초등5부는 ‘꿈담페스티벌’을 통해 복음팔찌 부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담아둘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직접 복음팔찌를 만들며 듣는 복음의 이야기는 쑥쑥 알기 쉽게 전해졌고, 예쁜 팔찌와 함께 따뜻한 복음의 내용이 아이들 마음 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도 재료가 모두 소진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으며, 교회를 처음 방문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 넘침을 경험했다.

- 1 꿈담페스티벌에서 복음팔찌를 맡은 초등5부는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 2 초등5부는 ‘고난주간 미션 챌린지’를 통해 가정에서 애찬식을 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학생들이 예배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초등5부



☞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조리한 간식을 먹는 제자훈련 친구들

교복데이 & 더 셰프

글 정은숙 기자

“나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새 학기를 맞는 중등부의 우렁찬 외침이 교회 곳곳에 울려 퍼졌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고 여러 학교에 다니는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결의를 다졌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학생선교사 파송식

꿈젠 중등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선교사 파송식’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선교사 파송식은 새로 중학교로 진급하는 1학년부터 중학교의 최고 학년이 된 3학년까지 모두가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다짐하며, 학생선교사가 되어 학교로 파송되는 서약식이다.

‘교복데이’라고도 불리는 학생선교사 파송식은 이번에 특별히 올림픽 콘셉트를 채택하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성과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총 64개의 다양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각자의 교복을 입고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어디서든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현석봉 중등부 부장님은 “학생선교사 파송식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학생들 모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고, 가장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으로 평생 기억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제자훈련 ‘더 셰프’

“하나님이 궁금해요!” 제자훈련을 위해 모인 중등부 학생들 눈이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최고의 셰프들이 직접 조리한 풍성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하는 제자훈련 ‘더 셰프(The Chef)’, 세상 속에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내기 위해 훈련받는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8주 동안, 꿈젠 중등부에서는 상반기 제자훈련 ‘더 셰프’가 진행되었다. 제자훈련 ‘더 셰프’는 셰프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학생들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요리(중요한 교리)라는 최고의 신앙 재료들을 모아 복음이라는 요리를 먹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셰프가 되자! 라는 의미이다.

엄유현 전도사는, “8주간 이루어지는 제자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발맞춰 걸어가며 제자로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부활절 & 제자훈련

글 정은숙 기자

제자훈련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8주 제자훈련을 열심히 달려왔다. 박주는 전도사가 이끄는 올해 제자훈련은 새롭게 리빌딩한 교재를 사용하여 내용이 더욱 풍성했다. 구원반과 성장반 두 제자훈련반에서 훈련받은 35명은 수료식을 통해 제자훈련의 은혜를 전했고, 이를 위해 애쓰신 나용찬 선생님과 10여 명의 교사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했다.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더불어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했다.

부활절 굿즈 제작!!!

고등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 매년 보내는 부활절이지만, 올해는 본질적 의미에 접근하고자 고민을 했다. 조춘동 집사(고등부장)는 작년에 고등부에서 기획한 워십투게더를 통해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에 올해도 워십투게더를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진행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박주는 전도사의 센스 있는 아이디어를 더했다. 올해는 부활절 굿즈를 제작하고, 기부형식의 판매를 유도하고, 수익금은 유기견과 유기묘, 한부모 가정,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당한 나라 등등 주변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해 묵숨까지 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부활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워십투게더를 진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부활의 기쁨으로 데커레이션과 팔찌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8주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고1 강승하 학생 수료증 수여식

청년광장

청년부 여름비전트립을 위한 일일 바자회 현장 스케치

장 소 교회 본관 앞마당 부스 & 식당

판매 품목 컵볶이, 음료, 아이스크림, 캐러멜 팝콘 등 다과류



2023 여름 청년부 여름비전트립

해외 이스라엘-요르단 비전트립 (6월 28일~7월 6일)

국내 제주 비전트립 (7월 12일~15일, 나무와숲학교)

초파케어 - 하임이를 응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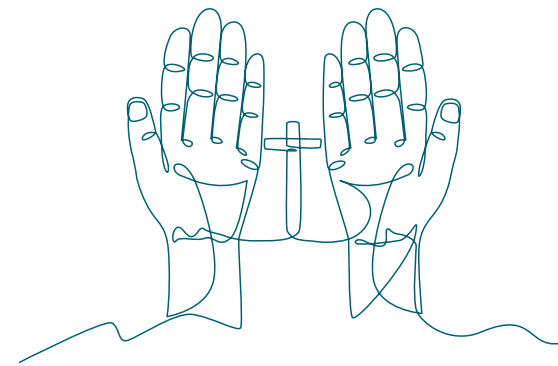
글 조희성 기자



⌘ 청년부 강철민 회장이 하임이 어머니께 초파케어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 하임이를 위한 청년들의 응원 메시지



2023 거룩한빛광성교회 원더풀

초파케어

초파케어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선교 헌금시 낼 수 있는 비용은 자율입니다.
현금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3333-25-2912783 카카오뱅크 이지웅**

⌘ 초파케어 프로젝트 홍보지



⌘ 힘들고 어려운 하임이의 투병 생활

광성교회 청년부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초파케어’ 사역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초파케어’는 2022년부터 청년부원들이 매주 팀 모임 때마다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 사역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영유아 환우들에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 25:45]라는 기독교의 실천적 사랑을 전하고자 ‘초파케어’ 프로젝트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초파케어 지원금은 김하임 어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하임 어린이는 2019년 12월 7일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하임이는 당시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전통제 패치(항암용, 펜타닐 성분)를 삼켰는데 그 패치가 목에 달라붙어서 마약 성분이 거의 10시간 가까이 온몸에 퍼졌고, 안타깝게도 그 성분이 뇌신경 쪽까지 퍼지게 되면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21일 최재욱 목사님과 청년부 임원단이 성남에 계신 하임이 어머니를 만나 뵙고 청년들의 후원금 200만 원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롤링 페이퍼를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상이 바뀐 하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잘 버티는 게 또한 고맙다는 하임이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삶에 어쩔 수 없이 지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 전달에는 하임이의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고 조금 느린 성장을 하고 있는 김하임 어린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웃는 아이라고 합니다. 하임이 웃음소리가 비타민이라는 하임이 부모님은 늦어도 괜찮다고, “우리 아들, 조금해하지 말고 행복하자.”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광성교회 청년부의 동행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김하임 어린이를 응원합니다.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초파케어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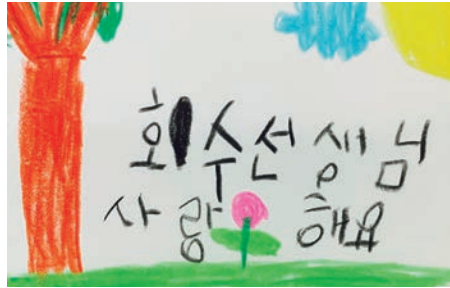
글 김호수(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뚜렷하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아교육과 진학’을 고집했다. 현장으로 나왔을 때는 열정이 넘쳤고 정말 배우는 것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다. 가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애들이랑 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

재미있게 놀아하는 건 물론, 사소한 식습관 지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헤쳐 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절과 습관을 함께 잡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한 반에 많게는 26명, 적게는 15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운 일이었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

초임 시절에는 학부모들의 예민한 반응에 상처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자책했다. 하지만 경험과 경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다. 노하우가 생기고, 학부모의 마음에 공감도 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주변이 생겨났다. 적응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학부모도, 아이들도 알아주는지 “우리 선생님은 재밌어! 너무 웃겨!”, “선생님! 내일 또 놀러올게요!”라고 한다. 말 한마디로 춤출 맛이 나고, 준비한 보람이 느껴진다.

㉸ 글씨에 관심이 생기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편지'를 작성해주었다



“너무 귀여워♡ 잘했어! 한번 해보는 거지! 선생님도 어릴 때는 잘했어! 선생님도 이거 싫어해. 근데 연습했더니 되더라!” 나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도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이 직업은 정말 무겁고 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아이들의 함박웃음에 사르르 녹고, 학부모들의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애 한 명 집에서 보는 것도 힘든데, 대단하세요.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맡깁니다. 1년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응원은 교사의 어려움이 가루처럼 사라지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뒤 삶 속에서 지치고 교사로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체력이 힘들고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투덜거리고 감정적이 되지만, 기도하며 다잡는 마음 안에 다시 사랑이라는 힘을 채워주셨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교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10년이라는 나의 경력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선생님이지?”라는 생각을 해본다. 초임 때 만난 우리 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오늘도 출근하면서 힘을 내본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즐거웠던 하루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줍니다

글 신현(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대학생활 중에 주님의 은혜로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좋은 교수님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실패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제 성장이 더디다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함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격과 습관들 가운데, 제 고집으로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폭 쉬게 하십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싱어송라이터’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제 삶과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음악 하는 친구들에게 내 음악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꿈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처럼 붕 떠 있을 때, 돌아가면서 곡을 발표하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잠깐 발표해볼 사람 나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스케치도 안 된 곡을 가지고 무조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허접한 가사와 멜로디지만 모두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들려주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은 반응에 매우 기뻐고 남들에

게 들려주는 일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계속 곡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아직까지도 제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수업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에 교수님들 혹평을 듣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를 좋게 봐주는 한 친구의 인정과 칭찬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음악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곡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미했던 제 꿈이 이제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 알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한걸음 내딛었더니 더 많이 주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한걸음 내딛어 보려 합니다.



㉸ 텃밭에서 수확한 무로 깍두기를 담고 있다



㉸ 이만큼 컸어요! 불룩을 이용하여 내 키만큼 구성해 보았다



㉸ 숲에서 만난 자연물을 탐색하고 꽃팔지와 반지를 만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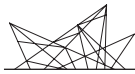
㉸ 팀과 만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팀플에서 팀원들과 모여 곡을 만들고 있다



㉸ 수업 시간에 자작곡 발표 중



주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여보, 아버님께서 방금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도 그 아름다운 아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내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미리 준비해둔 영접 글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읽은 아버지가 기적처럼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3번 아멘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 아버지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1주기엔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2주기엔 어머니와 누이 가정도 함께했습니다. 고교 시절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저희 가정엔 교인이 저 외엔 아무도 없었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주님께 감사, 그저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제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 4대 장손이셨던 아버지에게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사상이었고 그래서 5대 장손인 저와 6대 장손인 제 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후 제일 먼저 아버지 구원이 절실했기에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논쟁과 다툼. 화목하게 시작된 가족 모임은 주님 얘기만 나오면 늘 아버지 고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급성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구원 없이 그냥 소멸된다는 게 너무도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가 매달릴 건 기도뿐이라면서 아내가 작정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기도해 매달렸습니다. 주변 모든 분들께도 아버지 구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1월 12일, 아버지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선 10여 일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아버지 모습을 옆에서 바라만 봐야 한다는 건 참 슬프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마흔이 다 되어 얻은 늦둥이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매번 욕만 하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슬픔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이제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선 끝내 외면하시는구나.’

저는 절망했고 아버지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에 있던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몹시 떨렸습니다.



⋈ 어느 빛나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



‘여보, 아버님께서 방금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도 그 아름다운 아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내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미리 준비해둔 영접 글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읽은 아버지가 기적처럼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3번 아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새벽, 아버지는 너무도 편안한 표정으로 97년의 긴 소풍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가족이 한 일이라곤 그저 주님께 매달린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으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매달리십시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만난 거룩한빛광성교회

글 이춘희

저는 호수를 좋아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노후를 일산에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딸이 결혼하면서 일산에 동지를 틀게 되어 저도 몇 년 전부터 준비하다가 딸 가족과 호수와 산이 있는 탄현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근면 검소한 생활을 좋아하는 저는 남편에게 이제 퇴직했으니 더욱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자주 말하였고 딸네 교회에 등록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금요일에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이 났는데 직원이 오면 16만 원, 우리가 직접 사서 고치면 3만 원이라서 남편이 직접 고치다 의자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통갑스를 하고 2달을 지내야 하는... 한순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아끼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남편은 당분간 영상예배를 드리고 저는 늘 생각해보던 대로 뛰어서도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집 앞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교회에 가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숙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도 은혜가 됩니다. 가지고 간 손수건이 다 젖도록 설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조용필’. 몇 년 만에 그분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어찌나 가사가 좋고 노래를 잘하시는지 아주 행복했지만 한편으로 신앙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교인이 대중가요 들으며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지? 저는 콘서트를 다녀오면 그 기쁜 여운으로 1주일의 가사와 노래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느꼈습니다. 흔하디흔한 헤어 제품 하나 사용하지 않은 목사님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면 장미꽃을 주시겠다고 광고하시면 모두 저만 보는 것 같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죄인이 된 것 같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어서 사실은 저도 아쉽습니다. 남편과 가족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참아야 하니까요. 요즘은 저는 매일 손주들의 육아를 도와주면서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찬양을 가르치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귀하다고 믿으며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다 나아서 본 교회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이쁜 손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1 남편과 겨울 여행 중에
2 남편의 다리가 다 나아서 본 교회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이쁜 손님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책

거룩한빛광성교회 주일 성전꽃꽂이

김장미 권사 作



파라다이스 4

작가 노트

나의 작업은 우리들 삶에 행복을 선사하는 사소한 순간들에 대한 기록
과도 같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는 행복한 삶에 관한 다양한 가지치들이 있지만 나는 그 삶의 이야기들 중심에 가족을 두고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나만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하고 있다.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 안에 삶의 진실과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자전적 경험에서 찾은 이미지들을 동화적 화법으로 재구성하고 즐거운 추억과 상상을 넘나들며 행복을 찾아가는 나의 작업은 그 자체로서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소소한 일상의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



김선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MFA)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25회 (세종갤러리, 구구
갤러리, 마루아트센터 외)
콜라보레이션 (한전달력, 농협달력, 동서식품
사보표지, 캘리옌카드 외 다수)

작품 설명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들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가치를 찾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열쇠라고 믿으며 그 소소한 순간들을 작품에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상의 선물인 자연 속에서 사랑받는 가족들과 보내는 휴식의 시간이 주는 행복을 그린 <파라다이스> 시리즈 중 하나이다.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 잎과 파도가 넘실대는 곳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를 가족과 함께 즐기며 누리는 행복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또다시 힘차게 살아갈 에너지를 선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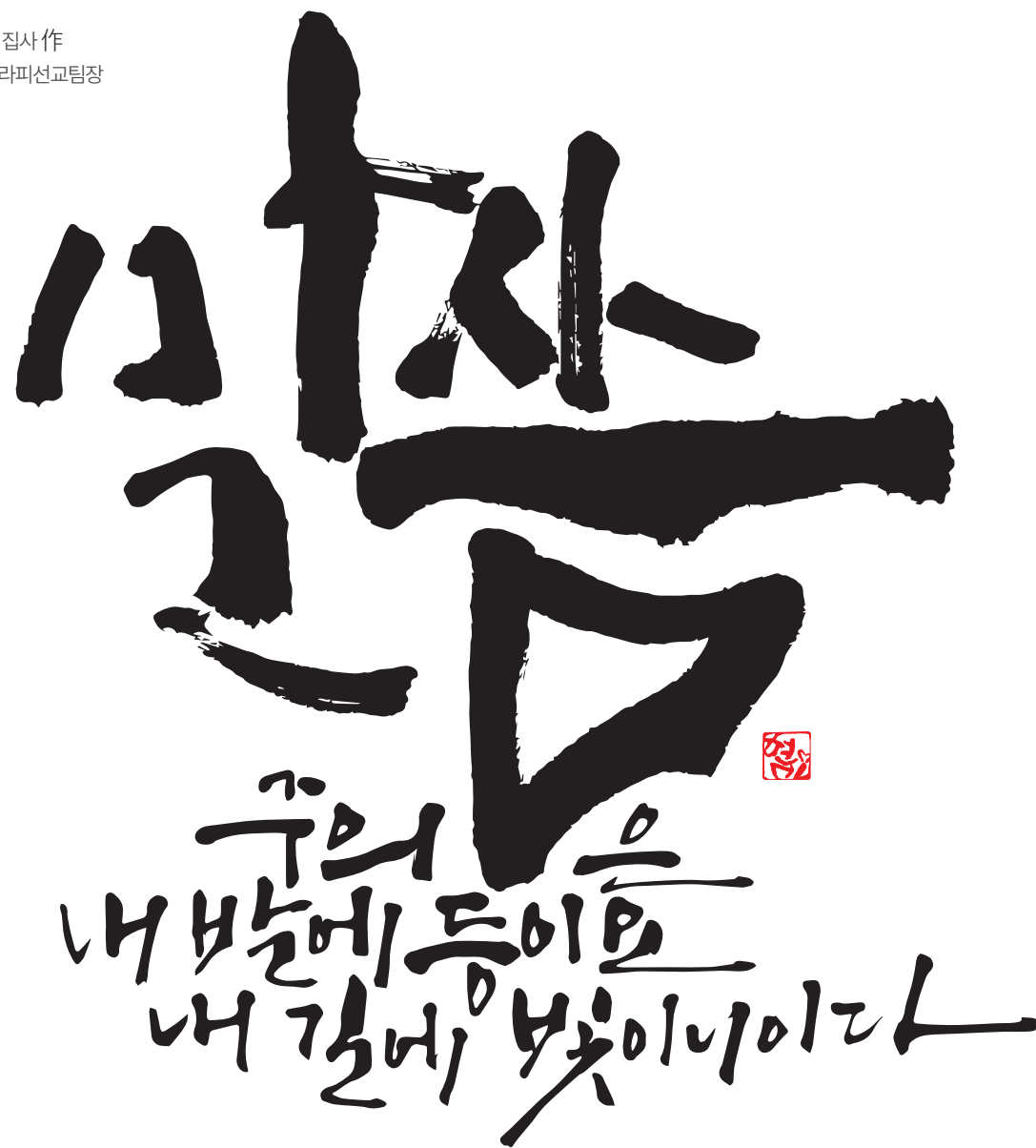
혼합 재료를 사용하여 캔버스 바탕에 오돌토돌한 표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현실적인 공간 구성과 사물 배치, 단순화된 이미지로 스케일을 마음대로 변화시켜 체험적 소재를 동화적 화법으로 재구성하여 시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소홀했던 가족애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캘리그래피

작품

이현미 집사 作
캘리그래피선교팀장



오래된 미래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문학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라고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말했다.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스웨덴 출신의 여성 사회학자 느르베리 호지가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히말리아의 고원 ‘라다크’에서 16년간 체험한 삶의 생생한 현장 보고서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았고 긴밀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누리며 천년 넘게 평화롭게 살아온 라다크가, 개발이라는 서구문화의 패권적 지배 밑에서 그들의 토착문화가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그린 흥미 있는 저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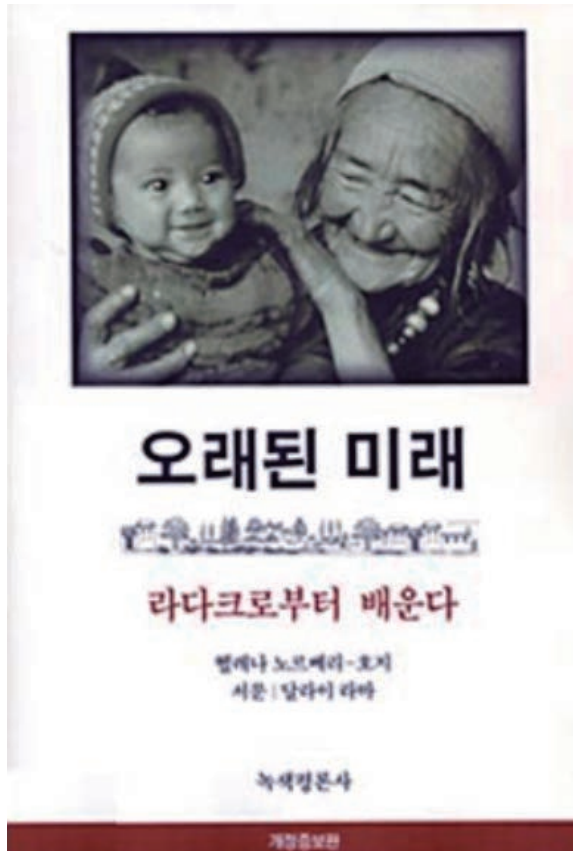
라다크의 어제

생태적 지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해 온 라다크! 적어도 그 지역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1960년대까지 “그들은 개화되지 않았고 누구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것이다.

“나는 라다크에서 낭비도 오염도 없는 사회, 범죄는 전무하고 공동체는 건강하며 십 대 소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유순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회를 알게 되었다.” - 25쪽

“21,000피트 높이로 솟아 있는 니이말링, 초록색 풀밭, 양탄자처럼 깔려 있는 야생화, 젊은 목동들의 피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기, 초지(草地)에 가 있는 며칠 동안 나는 인간의 삶이 수천 년간 어떠했는지를 알핏 본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는 땅과 짐승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몹시 감동적이었다.” - 49쪽

라다크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토록 여유 있게 생존하는 첫째 요건은 검약(儉約)이었다. 그들의 검약이란 결코 인색함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더 많이 얻어내는 일, 즉 그 어떤 것도 버리는 것이 없는” 생활인 것이다. 한 할머니는 보리로 ‘창’을 담그고 그 찌꺼기를 발효시킨 곡식에 물을 부어 네 번이나 술을 걸러낸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려서 갈아먹을 수 있게 한다. 또 기름을 짜고 남은 살구씨 찌꺼기는 조그만 컵 모양으로 만들어 물렛가락을 돌리는 데 쓴다. 심지어 설



㉸ '고갯길이 있는 땅' 위에 세워진 라다크 공동체 (사진 출처, 지식백과)



㉸ 곡식이 무겁게 지라서 이렇까지 숙여지기를 기도하는 라다크의 농부들(사진 출처, 지식백과)

거지물조차 짐승들에게 주려고 남겨 놓는다. 집에서 짜서 만든 옷을 더 기울 수가 없을 때까지 기워 입고 더 이상 기워 입을 수 없을 때는 진흙에 묻쳐 수로의 약한 부분에 끼워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 모든 식물, 관목, 야생의 잡초들은 모아서 연료, 마초, 울타리, 식품향료, 바구니를 짜는 데 쓰고 있으며 사람, 짐승의 배설물까지도 버리지 않는다. 특히 야크의 배설물은 말려서 훌륭한 연료로 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모든 것을 재순환 시킨다. “땅이 푸른 동안은 이야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 (라다크의 속담)

그들이 일하는 기간은 4개월뿐. 대지가 푸른 여름엔 부지런히 일하고 8개월이란 겨울 동안은 요리를 하고 짐승들을 먹이고 물을 길고, 겨우내 잔치와 파티로 즐겁게 보낸다. 결혼은 일처다부제이며 결혼 잔치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 주간 계속될 때도 있다. 경제는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조로 공생의 사회를 지속하며 아이들은 일찍부터 책임 있는 일을 배운다.

라다크의 오늘

그러나 1960년 중국인들이 티베트를 침공하고 연이어 1962년 라다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라다크와 인도 대륙을 연결하는 히말라야 횡단도로가 건설되는 것과 동시에 변화의 물결은 거세게 밀어닥쳤다. 1974년 이후 인도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방하기 시작하자 공동체 내부에 긴장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적 붕괴가 한꺼번에 일어나 평화로웠던 마을에 커다란 위협이 급격히 밀려왔다. 교육이 사람들을 농업에서 끌어내어 도시로 부르고 그곳에서 그들은 현금경제에 의존하게 된다. 도시에서의 제한된 일자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은 개발 이전이 훨씬 행복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자기의 뜰에서 키운 감자를 먹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화려한 포테이토칩을 사먹으며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소비는 더 많은 운송, 더 많은 화석연료, 더 큰 오염, 더 많은 화학첨가물과 방부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더 큰 거리를 의미한다.” - 175쪽

개발에 참여한 다국적 기업들은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유전자까지 조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라다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s)

저자는 가장 오래된 문화들과 가장 현대적인 문화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고 말한다. 곧 오래된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이고 진정한 미래는 오랜 옛 지혜 속에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지구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해온 오래된 유대관계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자녀들과 추억 만들기 좋은 다이나믹한 여행 공간 하이커 그라운드

글&사진 전영의 기자

곧 여름방학! 자녀들과 어딜 가면 좋을까? 산, 바다, 박물관, 다양한 체험관! 색다른 곳을 찾는다면 청계천에 위치한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는 어떨까? 하이커 그라운드는 ‘K-문화’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한국 관광 홍보관으로 다양한 이색 체험 존을 구비하고 있어 자녀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엔 좋다. 또 바로 이웃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에는 대통령들이 발걸음한 노포를 비롯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 올린 맛집, 개성 넘치는 멋집이 포진해 있다.



㉸ 3층 아트리움에 전시 중인 배준성 작가의 커미션 작품 '화가의 웃 - 축제'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물소리가 있어 상쾌한 청계천. 그곳을 걷다 보면 ‘와우’ 하며 걸음이 멈춰지는 곳이 있다. 5층짜리 유리 건물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영상 쇼가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음악, 패션, 여행, 미디어아트 등을 스펙터클하게 버무린 영상 쇼를 훑린 듯 바라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되는 이곳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다. 5개 층으로 구성된 하이커 그라운드는 층마다 테마가 있다. K-미디어(1층), K-팝(2층), K-드라마 & K-아트(3층), K-여행 & K-축제(4층), K-쉼터(5층).

한류 팬들에겐 성지로, MZ세대에겐 이색 놀이터로 부상한 하이커 그라운드는 서울 가 볼 만한 핫플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재미나게 즐길 만한 콘텐츠가 풍부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자녀들과 유쾌한 소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제니의 뮤직비디오가 연상되는 빨래방 컨셉의 스튜디오



㉸ 무료 대여되는 소품들



㉸ 간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떡만둣국 ㉸ 한 노포의 벽면에 붙어 있는 이곳을 다녀간 대통령들의 친필 사인

음악·조명·영상 내 맘대로, 나도 K-스타

1층 초대형 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영상 쇼는 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한국의 명소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영상은 장면마다 입체감이 살아 있다. 보라색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서면 뮤직비디오에서 본 듯한 환상적인 공간에 K-팝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실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연상케 하는 6개의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다.

지하철(Subway), 나의 무대(My Stage), 빨래방(Coin Laundry), 컬러방(Color Room), 우주선(Space Ship), 케이팝 댄스의 변화(K-pop Dance Evolution) 등의 6개 컨셉을 담은 6개 스튜디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내 맘대로 음악, 조명, 무대 디자인, 영상 등을 선택해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만의 끼를 발산할 수 있고, K-스타처럼 뮤직비디오를 남길 수도 있다. 100여 종이 넘는 배경과 특수 효과가 세팅된 ‘My Stage’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자신의 영상물을 USB에 담아 갈 수도 있다.

3층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한류 영상 콘텐츠와 한국을 빛낸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4층에서는 우리나라 웰니스 여행지와 디지털로 형식으로 구현해 놓은 지역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라운지와 노티드 도넛 하이커점이 있는 마지막 5층. 청계천과 종로 빌딩숲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라운지에서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오늘 여행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이커 그라운드를 알차게 즐기려면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 활용을 추천한다.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하이커 그라운드 바로 옆에 이웃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현대식 건물과 구시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다동·무교동, 그곳의 오래된 골목에는 도심 속 유산처럼 수십 년째 맛을 지켜 온 노포들이 즐비하다. 건물 외벽, 출입구 등에 그 식당의 내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어 소문난 맛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70년 전통의 노포에서 떡만둣국을 먹었다. 식당 벽면에 이곳에 와 식사한 3명의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미쉐린 가이드에도 6년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 좁고 투박한 골목 식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멋진 여행이란 어떤 것일까.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 예술 작품, 드라마틱한 서사, 맛집, 고품격 서비스 등을 보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행의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역시 화룡정점은 ‘함께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욱 행복하다.

예쁜 화분



위 그림은 지난 5월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그림일기 전시회’ 작품 중 하나다. ‘어르신 그림일기 전시회’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20여 명의 그림일기와 어르신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전문 작가 팀 ‘팔각장’의 작품이 함께 전시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중 ‘예쁜 화분’이란 제목의 그림일기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커다란 화분에 크고 작은 꽃들이 풍성하게 담긴 그림에, 일기는 단 두 줄이다.

그	림		그	려	서		너	무		좋	아	요	^^*	♥
기	분		너	무		좋	아		하	트	♥	!		

글은 짧지만 글이 주는 여운은 짧지 않다. 어르신이 문장 끝마다 그려 넣은 스마일 이모티콘과 하트 무늬의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어르신 입가에 번졌을 그 미소까지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하다. 어쩌면 인생은 흰 도화지 위에 꽃, 별, 나무, 의자 등을 하나씩 그려 놓으며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어르신의 지나온 인생 어디쯤에 이토록 고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 어르신은 그림을 그리며 그 꽃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일기를 보고 힐링하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을 아실까.

글 전영의 기자

사랑

글 서보연 권사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항상 즐겨워하시는 장로님

어느 날
남편은 장로님을
천국 아저씨라고 부른다

장로님은
I love you라고 하시며
내가 당신을 사랑할
십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나도 사랑받을
십만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나의 허물이 다 사라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백만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나의 영혼을 감싼다

그 이유를
오! 늘~
깨달게 하시니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

글 오성한 목사(웅천교회)

날 사랑해 오신 주님

그 모습 보이네.

만왕의 왕,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내 몸 성전 삼고 좌정하셨네.

추하고 더러워 앓을 수 없어

몸 찢어 흘린 피로 닦아 내셨네.

내 몸에 좌정하여 행복해하시며

내 목소리 듣고 감격하시네.

죽음으로 얻은 나를 보실 때마다

사랑한다. 성한아, 난 널 사랑해

자주 듣는 이 목소리 눈물이 나네.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사랑의 고백은 끝나지 않네.

-김종찬 목사님이 ‘날 사랑해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곡을 붙인 시 ‘고백’-

날 사랑해 오신 주님

작사 오성한
작곡 김종찬



『복음으로 변화되라』로 출간된 책을 쓰기 위해 작은 공간인 다락방에 앉았다. 책을 쓰기 위해 기도한 후 적기 시작한 시가 첫 글이었다. 시를 적은 후 다시 읽고 읽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라기보다 통곡에 가까운 감격이었다. 또 울고 또 울었다. 20일 동안 감격의 눈물은 계속되었다.

글을 적고 싶었으나 주님께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를 멈출 수 없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 후 적은 글이어서 그런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내가 느낀 감격을 전해왔다. 복음의 기쁨으로 변화되어 새 삶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삶을 고백해 오곤 한다. 감사한 일이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불러 알려진 김종찬 목사님은 가수에서 목사가 되셨다. 『복음으로 변화되라』를 읽으려 펼친 책 앞부분에 있는 ‘고백’을 읽고 곡을 붙여 직접 부르시고 나에게 보내왔다. 김종찬 목사님은 ‘날 사랑해 오신 주님’으로 곡명을 붙였다. 내가 섬기고 있는 웅천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 이 곡을 불러 주시기도 했다. 김종찬 목사님이 부른 ‘날 사랑해 오신 주님’은 유튜브 <오복음tv>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시를 읽은 분께 유튜브 <오복음tv>와 책 『복음으로 변화되라』를 강력 추천한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인생의 흔들 깃발이 생겨 행복하고, 밝은 복음의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많은 분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다. QR 코드를 찍어 보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오성한 목사

웅천교회 담임목사
유튜브<오복음tv> 운영
WGM본부장
CTS <4인4색> 3회 출연

짚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글 김용기 기자

1. 아보트(할아버지, 할머니)학교 1기 수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배우는 아보트학교가 열렸다. 아보트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말로, 아보트학교는 100세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에 점점 많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믿음의 산 조상(출 3:15)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주는 학교이다. 60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보트학교는 4월 8일~29일까지 4주간 토요일마다 열렸다.



2. 다음세대 교사 교육 ‘교사 베이직’ 진행

다음세대 신앙교육 교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이론을 배우는 ‘교사 베이직’이 열렸다. 교회학교의 교사로 임명된 신입 교사를 비롯해 향후 교사 봉사를 준비하는 성도나 기존 교사도 교육에 참여했다. ‘교사 베이직’ 과정은 한요한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총괄 목사를 강사로 4월 8일~29일까지 4주간 토요일마다 열렸다.



3. 부활절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 예배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도들이 부활절 헌금 봉투에 기부대상자를 지정하거나 불우이웃,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등을 선택해 헌금할 수 있도록 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한 총 1억 5,227만 원을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사회 봉사 기관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지원금으로 흘려보냈다.

4. 춘계부흥성회 열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춘계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를 강사로 4월 19일~21일까지 열렸다. 유 목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하나님은 원수 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주신다.”고 강조했다.

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창모 힐링 콘서트 열려



구창모 힐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문화선교위원회는 4월 30일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성홀에서 ‘구창모 힐링콘서트 with 송골매 밴드’ 행사를 가졌다. 구창모 집사는 “코로나 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간증이 있는 콘서트”라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6. 「선교 더 깊은 연결」 필리핀 선교팀 출발



거룩한빛광성교회 6교구 19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선교팀은 5월 18일~23일까지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다. ‘선교 더 깊은 연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선교지 탐방은 오는 8월까지 총 13개 팀, 155명이 전 세계 9개 나라의 선교지를 탐방하게 된다. 세계선교위원회는 5월 14일 주일 2부 예배에서 교구별 선교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교지 탐방과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심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ON 크로스로드 TV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한국 교회를 위해 성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갈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성진 목사

*다윗의 물맷돌 **한** **국교회** **미래를**
ALL **라인** **준비하는**
SCHOOL

Crossroad Church-planting Center by 크로스로드

F 정기포럼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
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A 아카데미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서신학/ 실천신학/ 인
문학/ 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
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
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사랑방 에듀살롱

지역모임/ 오프라인

C 컨퍼런스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프로
그램(신학서당/ 설교서당/ 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
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
의 지역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서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자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비밀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WWW.CROSSROAD.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장항동, 메탈릭타워) 9층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T.031-901-0316

CMS 후원신청서

후원단체 정보 *후원기관명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사업자번호 : 364-82-00287
*대표자명 : 정성진 대표이사 *수납요금종류 : 후원금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회원 정보

*성명(법인명) _____ *핸드폰번호 _____

*주소 _____

0만원선교회 회원

CM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예금주명 _____ *예금주생년월일 _____

*예금주연락처 _____ *신청인과의관계 _____

*금융기관명 _____ *출금계좌번호 _____

*납부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후원내용 ☐ 월 1만원 ☐ 기타(운영위원) 월 _____ 만원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또는 서명

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0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금융결제원, 국세청, (주)케이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및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안내 ...

은행 및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연락처 정보(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
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후원내용

1. 정기 후원금 월 _____ 만원
2. 일시 후원금 _____ 만원

*기부금 연말정산 가능

세계선교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세계선교위원회는 선교기획팀, 선교훈련팀, 선교지원팀, 선교정보팀, 선교재정팀, 태국예배팀, 베트남예배팀, 영어예배팀의 5개 선교팀과 3개의 예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는 해외로 파송된 17가정의 파송선교사와 17가정의 협력선교사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력, 지원,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선교바자회, 선교사님께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 그리고 선교학교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교회 차원의 정기적인 행사인 세계선교대회, 선교지 탐방, 아웃리치, 교구별 선교지 방문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던 선교대회를 4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다.

8월에는 박승현 위임목사님과 7명의 선교위원들이 필리핀에 있는 파송 및 협력선교사 7가정의 선교지를 모두 탐방함으로써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파송, 협력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또한 10월에는 '선교학교'를 열어 1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모든 교육을 마친 수료자들과 세션위원 그리고 위임목사님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아웃리치팀이 태국 치앙마이의 이국찬 협력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되었다. 팀원들은 태국의 장로교단 목사님들을 섬기고, 산죽 마을에서 카렌족과 아카족 교회 성도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치, 떡볶이, 팔빙수, 화관무, 미용, 이침 등으로 현지인들을 섬기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현지인 교회(람방 드림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아웃리치 이후에 전달받게 되었다. 필리핀 선교지 탐방과 태국 아웃리치를 통해 위임목사님은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생생한 선교 현장의 감동을 온 성도들이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중 2023년에는 성도들이 각 교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의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교구별 선교지 방문'을 추진하게 하셨다. 온 교회의 격려와 후원 속에 지난 5월 18일 6교구가 필리핀 선교지로 향해 첫 출발을 하였고 8월 조이폴 교구의 과테말라 출정까지 13개 교구 총 154명의 성도들이 세계 10개국의 선교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먼저 길을 닦고 문을 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선교위원회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선교 열정으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동적인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예배팀

영어예배팀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성도들이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팀이다. COVID-19 이후 재외 동포들의 귀국과 국내에 있던 외국 성도들의 본국 이동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 크리스 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의 활성화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영어예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교육관 1동에서 매주 일요일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베트남예배팀

베트남예배팀은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반기는 근로자 중심이었지만 결혼 이민자(베트남 여성)들이 점차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는 다문화 가정 중심의 예배팀이 되었다. 베트남예배팀 감사의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서 유독 다자녀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한 명으로 모자라 둘째는 기본으로 주시고, 어떤 가정은 일찍 천국으로 보낸 딸 대신에 아들 쌍둥이를 주셨고, 그 은혜를 목격한 다른 자매는 딸 쌍둥이를 현재 임신 중이다

태국예배팀

태국예배팀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따라 이곳 한국에 일하러 온 태국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며 본국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돕고 있다. 태국의 77개 도에 한 명 이상의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47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3년 7월 2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이하음, 최아인

청년부 취재기자 :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사진 : 조희성

편집 : 심혜옥, 김형수

책임편집 :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운정역 창고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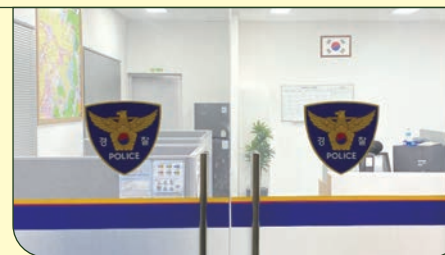
www.1takestdo.com

문의 전화 : 010-5873-4589



2023년 1월 1일 오픈

영화, 드라마, 광고, 창고 형 세트장



A동

40평 파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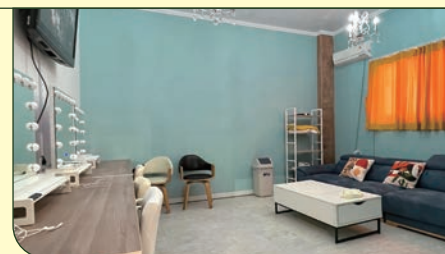
파출소 / 지구대(완벽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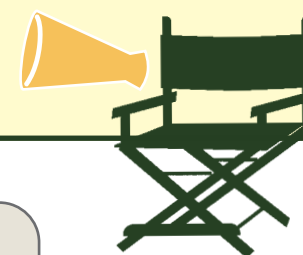
B동

60평 자유 연출 공간

이동식 벽 활용
총 5가지 콘셉트 방 연출 가능



분장 / 대기실



원테이크 스튜디오

OPEN EVENT

시간당

30만원->18만원

2022.12부터
~ 2023.2월 말 까지

기본 3시간 대관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 특별 추가 할인



오시는 길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73-2

운정역 900m, 야당역 1.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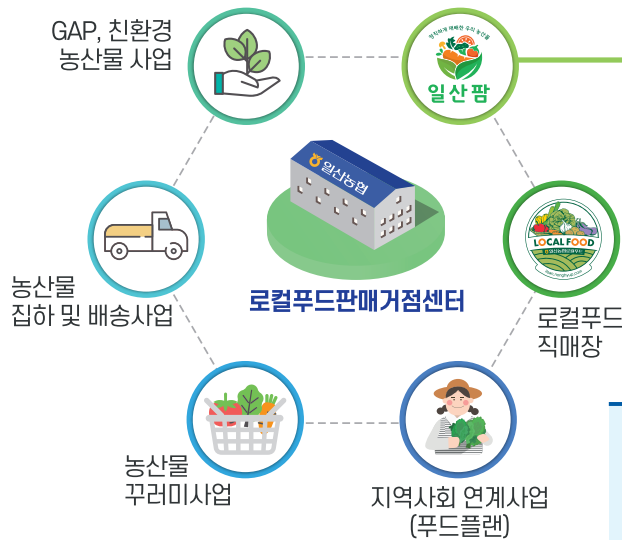
사업자 대표 : 이로운 | 사업자 등록번호 : 896-19-01625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3년 준공예정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3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 | 구분 | 내용 |
|---------|--------------------|
| 1) 건축면적 | 1,464평 |
| 2) 부지면적 | 2,922평 (4차선 도로수용후) |
| 3) 용도 | 판매시설 |
| 4) 위치 | 장항동 565-6 외 4필지 |



■ 본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8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3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8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 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